

2023 한국 ESG 금융백서

KOREA ESG FINANCE WHITE PAPER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은 2007년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 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 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외 TCFD, PCAF, RE100, EV100, 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은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년 넘게 활동 중이다. 서울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를 지낸 민병덕 의원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법률지원단장을 거쳐 202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민병덕 의원은 갑과 을이 대등한 힘의 균형을 통해 정의로운 분배를 주도하고, 이것이 혁신의 기초체력이 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의 여러 관련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SG금융백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적기관 민간 기관에 ESG금융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발간정보

제목 2023 한국 ESG금융 백서
발간일 2025년 2월 19일
보고서 작성·편집 사회영, 송명은, 이재혁, 강윤서, 박남영, 김태한, 정유민
디자인·제작 좋은PR소아

Disclaimer
© 2025 KoSIF All Right Reserved. 본 백서의 내용은 민병덕 의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정확성 및 완전함이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 자료의 복제, 배포가 금해져 있으며 오로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발간사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03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04

Executive Summary

국내 ESG금융 전체 현황 10

ESG금융 유형별 세부 분석

ESG투자 21
ESG대출 25
ESG채권 발행 30
ESG금융상품 32

ESG금융 이슈 보고

ESG금융 목표 36
민간은행의 녹색여신 현황 41
국민연금의 ESG투자 43

부록

ESG금융 총액 기준 섹터별 TOP 5 금융기관 46
2023 ESG금융 목표현황 47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 조사 대상: 국내 공적, 민간 금융기관(응답기관: 공적-66개, 민간-90개)
- 조사 방법: (공적) 국회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주무부처에 설문지 발송 (민간) 국회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자료 취합
- 조사 기간: 2024년 8월 ~ 10월
- 조사 내용: (2023년 말 기준) 자산현황, 연도별 ESG금융현황, ESG대출 현황, ESG투자(사회책임투자)현황, ESG금융상품 현황, ESG관련 채권발행 현황, ESG금융목표 및 ESG제도 활성화
- 추가 자료조사: ESG공모펀드는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발간사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03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04

발간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영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ESG의 미래'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슬로건 하의 석유·가스 시추 허용, 반 ESG(Anti-ESG) 진영의 거센 압력, 유력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ESG 관련 이니셔티브 탈퇴나 ESG 침묵(ESG Hushing)...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언급하며 혹자는 ESG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혹자는 트럼프의 반 ESG 정책이 추진 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큰 흐름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럽연합 등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등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천문학적 자본이 탄소중립 기술이라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투자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ESG와 반 ESG의 충돌. 우리나라는 긴 호흡으로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유럽연합의 ESG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트럼프 정권도 임기가 있다는 점, 특히 유럽연합은 물론 반 ESG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정권도 특정 사안에서는 ESG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호무역주의와 탈세계화의 기조 하에 유럽연합과 미국은 환경, 인권 등 ESG 이슈를 통상과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이와 유사한 미국의 청정경쟁법(CCA)이 대표적입니다만 따로 탄소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 19.5%, 미국 18.7%, 유럽연합 10%, 일본 4.3%입니다. 우리가 일회일비 하지 않고 ESG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ESG 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2023 한국 ESG금융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ESG금융 규모는 2021년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500조 원, 이번 백서의 통계 시점인 2023년말에는 1,9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ESG 워싱(ESG Washing)은 늘 경계해야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고무적입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의 ESG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ESG금융(ESG투자, ESG대출, ESG채권, ESG금융상품)의 모든 영역에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그 견인차는 'ESG투자, 공격금융, 국민연금'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의 ESG금융 규모도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일부 반 ESG를 우리의 ESG금융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사회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정책 당국자는 이번에 발간한 백서를 토대로 ESG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자본이 지속가능한 경제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작금의 반 ESG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ecutive Summary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

안녕하십니까.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작년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추석 이후까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늦은 시기까지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11월에는 117년 만의 폭설이 내려 대한민국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많은 국민께서는 기후 위기가 당연한 실체적 위협이고, 앞으로의 세상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곤 강하게 예감하고 계십니다.

기후 위기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라는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무더위와 기습적 폭우, 때아닌 폭설이 특정 정파와 정당을 가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국민이 기후 위기의 당사자라는 점이 바로 지난 10월, 여와 야의 국회의원 한 명씩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ESG포럼'을 출범시킨 주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라고 하지만, 세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기업의 존재 이유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더 적극적인 ESG 경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ESG 금융 규모는 1,882.8조 원에 이르러 2019년 대비 213.3%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의 ESG 투자 규모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2.9% 성장한 587.2조 원에 달해 공공이 ESG 금융에 어느 정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아직 금융기관 네 곳 중 한 곳은 구체적 ESG 금융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있었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ESG 통합 정책 또한 직접 운용 부문에서의 평가 및 모형 결과에 대한 폐쇄성, 위탁운용 자산의 과대 계상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 등의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ESG 금융백서 발간이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한해 한해 더딘 듯하지만, 그럼에도 ESG의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는 ESG 금융백서 발간이 적지 이바지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ESG 금융백서의 발간이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반추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쌓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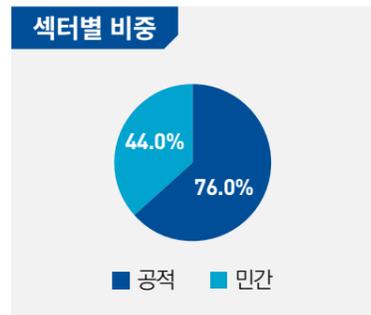
앞으로도 ESG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힘과 길을 잃지 않도록, 국회 안팎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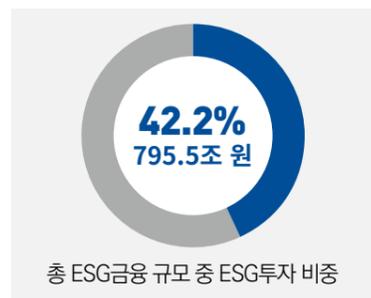
ESG금융 전체 현황



- 2023년 말 기준 설문에 응답한 국내 금융기관의 총 ESG금융 규모는 1,882.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2019년 대비 213.3% 성장)
- 2023년 ESG금융 규모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1,430.6조 원을 기록한 공적 섹터(특히 52.9% 성장한 국민연금)로 전년 대비 30.2% 성장. 민간 섹터 또한 은행 부문의 대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12.3% 성장을 기록
- 유형별 분석에서는 i) ESG투자(사회책임투자) 795.5조 원(총 ESG규모의 42.2%), ii) ESG대출 761.8조 원(40.5%), iii) ESG채권 발행 244.7조 원(13.0%), iv) ESG금융상품 80.7조 원(4.3%)으로,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ESG투자
- 국내 ESG금융시장의 성장은 금융당국의 ESG투자 확대로의 정책 방향과 금융권의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반영, 주요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됨
- ESG 영역별(국민연금 및 ESG채권 발행 금액 제외)로 살펴보면 E(환경) 부문은 173.9조 원(총 ESG금융의 16.5%), S(사회)는 786.6조 원(74.9%), G(거버넌스) 3.6조 원(0.3%), ESG통합¹ 86.8조 원(8.3%)로, S(사회)영역의 비중이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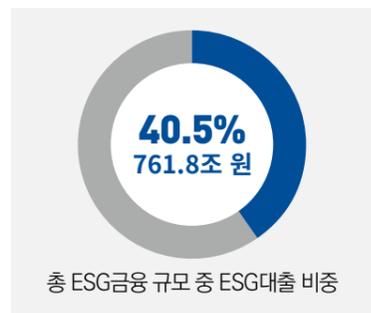


유형별 ESG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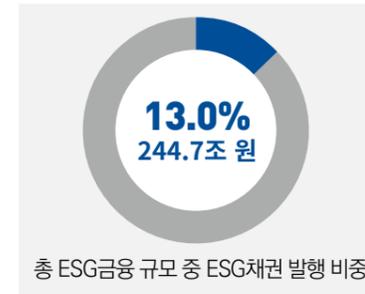
ESG투자

- 국내 금융기관의 ESG투자 규모는 795.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2% 성장.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하는 해외 주식(138.5조 원)을 ESG투자에 포함시키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유형별로는 주식 482.5조 원, 채권 282.0조 원, 대체투자 31.0조 원 순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의 규모가 전년 대비 각 74.0%, 12.9%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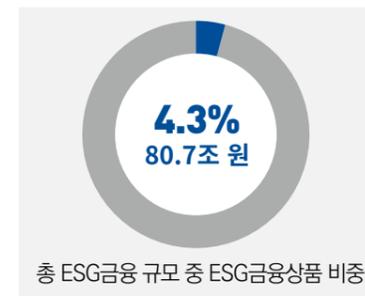
ESG대출

- 국내 금융기관의 ESG대출 규모는 76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성장
- 상품별로는 개인대출 452.9조 원(ESG대출의 59.4%), 기업대출 268.5조 원(35.2%), 프로젝트파이낸싱 34.7조 원(4.6%), 지속가능 연계대출 5.8조 원(0.8%) 순으로 나타남. 다만, 개인대출의 93.1%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자리론, 주택보증 등으로 제공된 421.6조 원임
- 영역별로는 사회(S)영역 615.5조 원(80.8%), 환경(E)영역 115.8조 원(15.2%), ESG통합 30.4조 원(4.0%)순으로 나타남



ESG채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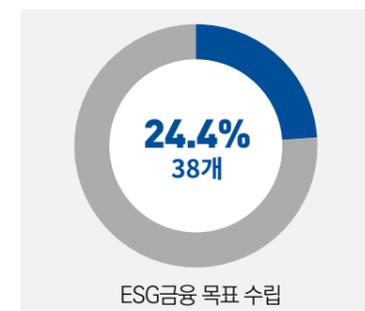
- ESG채권 발행이란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특수 목적 채권
- 2023년 ESG채권 발행 규모는 총 24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3% 성장
- 채권종류별로는 사회적채권 211.6조 원, 녹색채권 17.8조 원, 지속가능채권 15.3조 원으로 구성
- 사회적채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자금 관련 채권(146.1조 원)이 주요 원인



ESG금융상품

- ESG금융상품이란 가입자의 ESG관련 활동과 연계하여 우대금리 제공, 보험료 할인/감면,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줌으로써 ESG실천을 장려하는 각종 예금 및 금융 상품으로 총 ESG금융 규모의 4.3% 차지
- 2023년 ESG금융상품 규모는 80.7조 원으로 전년대비 9.1% 성장
- 유형별로는 예·적금(44.3조 원), 보험(20.2조 원), 펀드(8.3조 원), 카드(7.8조 원)로 구성되며, ESG금융상품의 80%를 차지하는 예·적금 및 보험의 증가(각 12.3%, 10.6%)가 ESG금융상품의 성장을 견인

ESG금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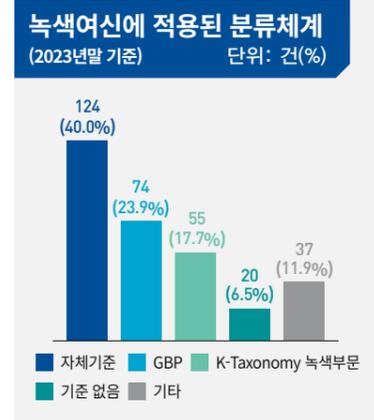


- 응답기관 총 156개 금융기관 중 38개 기관(24.4%)이 ESG 금융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26.6%(44개)와 2022년 26.3%(45개)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확인됨
- 목표 수립 기준은 '목표연도 잔액기준'이 14개, '기타' 10개, '목표연도 투입금액'이 9개, '투입 누적 금액' 5개
- 금융기관별 목표연도 및 기준이 달라 명확한 비교가 불가능
- 통일된 ESG금융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과 목표 성취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1.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가 두 개 이상 결합된 유형

국내 ESG금융 전체 현황

민간은행 녹색여신 현황



- 2024년 12월 정부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으며, 일부 민간은행은 이보다 앞서 자체 녹색여신 적합성 심사 프로세스를 운영
- 2023년 말 기준 12개 민간은행의 녹색여신 잔액은 31.7조 원(총 대출자산의 1.9%)
- 녹색여신 활성화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녹색여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지적됨
- 310건의 녹색여신 심사 중 은행 자체 기준이 124건(40.0%)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으며,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74건(23.9%),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 55건(17.7%)이 뒤를 이음
- 녹색여신 운영의 주요 애로사항은 녹색경제활동 적합성 판단의 어려움과 금융사 간 녹색여신 실적 비교의 어려움
- 녹색여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체계 마련과 녹색여신 실적 측정기준의 표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의 ESG투자



- 2023년 국민연금 책임투자 규모는 587.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9% 증가
- 책임투자 규모 확대는 2019년 국민연금이 의결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ESG통합 정책’의 결과로, 국민연금의 총 운용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은 2021년 13.7%, 2022년 43.1%, 2023년 56.7%로 지속적인 성장 기록
- 그러나 국민연금이 마련한 ESG통합을 위한 평가 체계는 직접운용 형식의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에만 국한되어 있고 ESG 평가 및 모형 결과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은 ESG평가 체계 적용 자산군 확대, 평가체계 공개, 위탁운용사가 투자 기업에 대해 강력한 관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점검 프로세스 마련,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 ESG 정보공개 요구 등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

국내 총 ESG금융 규모 10

국내 ESG금융 전체 현황

국내 총 ESG금융 규모

표 1 연도별 ESG금융 잔액 상세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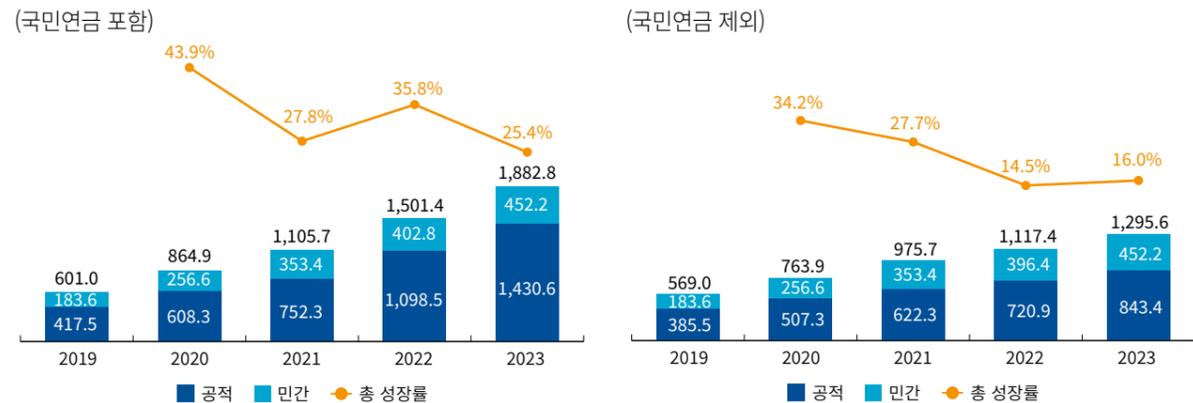
연도	ESG투자			ESG대출			ESG채권 발행			ESG금융상품			총 합계		
	공적 (국민연금)	민간	소계	공적	민간	소계	공적	민간	소계	공적	민간	소계	공적 (국민연금)	민간	합계
2023	631.5 (587.2)	164.1	795.5	574.1	187.8	761.8	214.8	29.9	244.7	10.3	70.4	80.7	1,430.6 (587.2)	452.2	1,882.8 (587.2)
2022	415.8 (384.1)	139.8	555.6	502.2	172.8	674.9	171.4	25.4	196.8	9.2	64.8	74.0	1,098.5 (384.0)	402.8	1,501.4 (384.0)
2021	152.8 (130.2)	123.0	275.8	449.7	142.3	592.0	143.7	19.9	163.6	6.2	68.2	74.4	752.3 (130.0)	353.4	1,105.7 (130.0)
2020	114.7 (101.4)	80.0	194.7	399.2	106.3	505.5	90.0	9.8	99.8	4.4	60.5	64.9	608.3 (101.0)	256.6	864.9 (101.0)
2019	38.9 (32.2)	40.6	79.6	342.2	82.3	424.4	29.6	4.9	34.4	6.8	55.8	62.6	417.5 (32.0)	183.6	601.0 (32.0)

2023년 말 기준 설문지에 응답한 국내 금융기관의 총 ESG금융 규모는 1,882.8조 원으로 2022년 1,501.4조 원 대비 25.4% 성장, 주요 성장 요인은 국민연금(2022년 대비 52.9% 성장)

- 2023년 말 기준 설문에 응답한 국내 금융기관의 총 ESG금융 규모는 1,882.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2019년 대비 213.3%성장)
- 2023년 ESG금융 규모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1,430.6조 원을 기록한 공적 섹터로 전년 대비 30.2% 성장(성장액: 332.2조 원)
- 특히 2023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가 587.2조 원으로 전년에 이어 52.9%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 이는 2019년 국민연금이 의결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 국민연금이 발표한 책임투자 자산군 확대 정책에 따라 해외 직접 투자 주식(138.5조 원)이 책임투자자로 분류되었기 때문
-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 또한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295.6조 원을 기록, 공적 및 민간 섹터 모두 각 17.0%, 14.1%의 성장을 보임
- 이 같은 국내 ESG금융시장의 성장은 금융당국의 ESG투자 확대로의 정책 방향과 금융권의 ESG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반영, 주요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됨

그래프 1 연도별 ESG금융 잔액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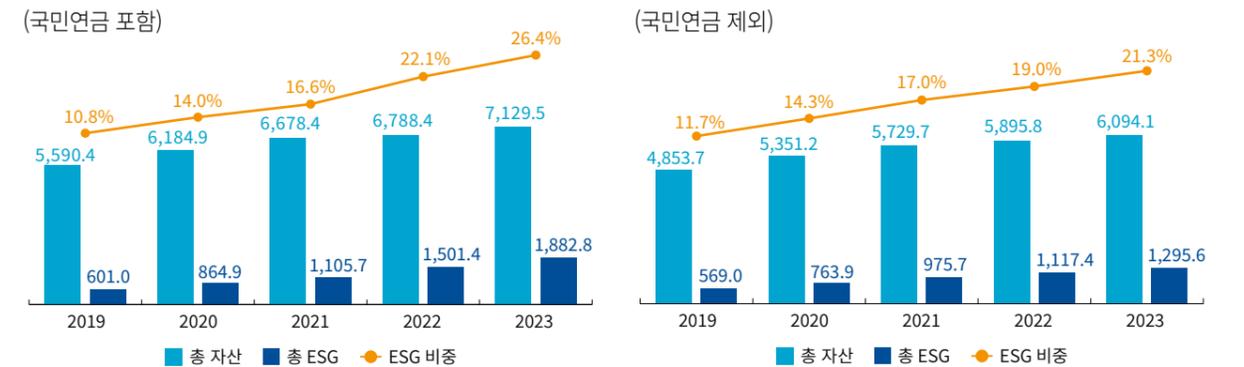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2023년 국내 금융기관의 총 ESG금융 규모(국민연금 포함)는 2023년 총 자산 7,129.5조 원의 26.4%²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전년 총 자산 대비 비중 22.1%보다 4.3% 증가하며 매년 상승 곡선을 나타냄
- 국민연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ESG비중은 국민연금 포함 시 비중보다 다소 떨어진 21.3% 기록하고 있으나 2019년 11.7%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그래프 2 총 자산 대비 ESG금융 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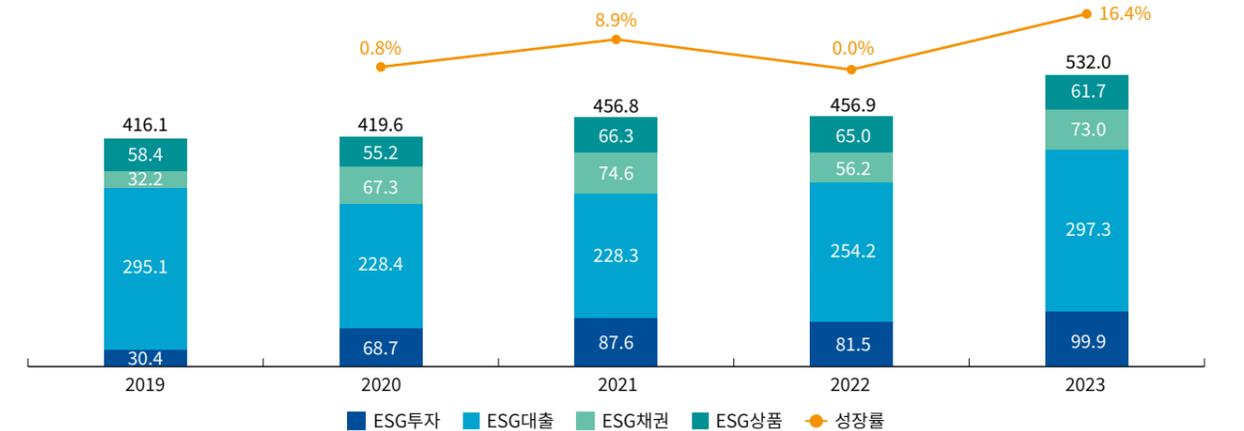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공적, 민간 금융기관들의 2023년 ESG금융의 신규 실행액은 532.0조 원으로 2022년의 456.9조 원 대비 16.4% 성장
-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ESG대출이 총 신규 실행액 297.3조 원(총 ESG신규 실행액의 55.9%)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ESG투자 99.9조 원(18.8%), ESG채권 73.0조 원(13.7%), ESG상품 61.7조 원(11.6%)로 나타남
- ESG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17.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2023년 신규 실행액 297.3조 원 중 87.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 대출(140.5조 원) 및 기업대출(117.6조 원)
- 총 ESG투자 규모의 73.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신규 투자 금액을 제공해 주지 않아 ESG투자 영역의 신규 실행액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주식, 채권, 대체투자 모든 부문에서 2022년 대비 성장을 보이며 총 22.6% 상승
- ESG채권의 신규 발행 규모 또한 전년 대비 30.0%의 큰 폭 상승세를 기록, 채권 종류로 살펴보면 사회적채권이 67.8조 원(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녹색채권 3.3조 원(4.5%), 지속가능채권 1.9조 원(2.6%) 순서로 나타남
- 총 ESG 신규 실행 규모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ESG상품은 2022년 대비 5.1% 하락세를 기록, 이는 예·적금의 신규 실행액 성장이 전년 대비 다소 저조하였기 때문

그래프 3 연도별 ESG금융 신규 실행 규모 상세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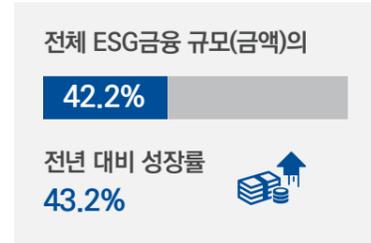
2. ESG금융 규모 산정에는 위탁 자산, 채권의 발행 및 인수 등의 부문에서 일부 중복값이 발생할 수 있음

유형별 ESG금융 규모

표 2 ESG금융 유형 분류 기준 및 비중(2023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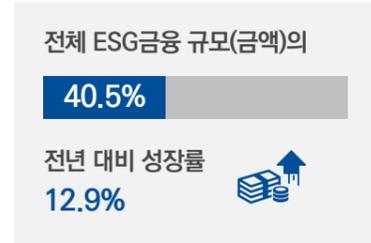
유형	유형 상세	금액(조 원)	비중
ESG 투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795.5	42.2%
ESG 대출	기업대출, 개인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761.8	40.5%
ESG 채권 발행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 지속가능연계 채권	244.7	13.0%
ESG 금융상품	보험, 예적금, 카드, 펀드(리테일)	80.7	4.3%

2023년 말 기준 i) ESG투자(사회책임투자) 795.5조 원(총 ESG규모의 42.2%), ii) ESG대출 761.8조 원(40.5%), iii) ESG채권 발행 244.7조 원(13.0%), iv) ESG금융상품 80.7조 원(4.3%)으로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ESG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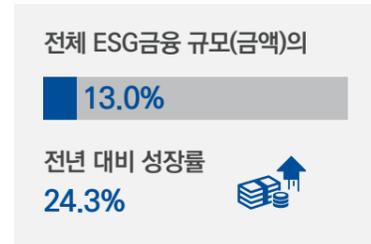
ESG 투자

- 유형별 기준 가장 비중이 높은 ESG투자의 2023년 말 총 잔액은 795.5조 원으로, 이 중 주식투자가 482.5조 원(총 ESG투자 금액 중 60.7%), 채권 투자 282.0조 원(35.4%), 대체 투자 31.0조 원(3.9%)로 구성
- 전년 대비 43.2% 성장, 이는 ESG투자 총액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책임 투자의 급증에 기인(2022년: 384.1조 원 -> 2023년: 587.2조 원)
-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ESG투자는 20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5%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주식, 채권, 대체투자 모든 상품에서 증가 추세



ESG 대출

- 개인대출 452.9조 원(총 ESG대출의 59.4%), 기업대출 268.5조 원(35.2%), PF 34.7조 원(4.6%), 지속가능연계대출 5.8조 원(0.8%)로, 총 ESG대출 761.8조 원 중 개인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
- ESG대출의 57.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한 대출(총 434조 원³). 이를 제외하면 ESG대출 규모는 327.8조 원으로, 이 중 기업대출이 약 80%
- ESG대출은 전년 대비 12.9%(주택금융공사 대출 제외 시 1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공적, 민간 금융 모두 성장세를 기록(각 14.3%, 8.7%)



ESG 채권 발행

- 2023년 말 총 ESG채권 잔액은 244.7조 원으로, 이 중 사회적채권이 86.5%(211.6조 원), 녹색채권 7.3%(17.8조 원), 지속가능채권 6.2%(15.3조 원)으로, 사회적채권이 대부분을 차지
- ESG채권의 87.8%(214.8조 원)는 공적 금융 금액으로, 이 중 68.0%(146.1조 원)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회적채권
- ESG채권 규모는 전년 대비 24.3%(공적 25.3%, 민간 17.6%)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 대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

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은 2023년 말 기준 개인대출 421.6조 원, 기업대출 6.5조 원, PF 5.9조원으로 구성됨

전체 ESG금융 규모(금액)의

4.3%

전년 대비 성장률 **9.1%**



ESG 금융상품

- 예·적금 44.3조 원(54.9%), 보험 20.2조 원(25.1%), 펀드(리테일) 8.3조 원(10.3%), 카드 7.8조 원(9.7%)으로 예·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예·적금 중 59.3%가 NH농협은행이 보유한 농어촌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을 위한 예금
- 예·적금 및 보험 금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1% 성장

영역별 ESG금융 규모

표 3 2023년말 기준 ESG 영역별 분류

단위: 조 원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통합(ES/SG/ESG) ⁴				총 합계	
	투자	대출	상품	합계	투자	대출	상품	합계	투자	대출	상품	합계	투자	대출	상품	합계		
공적	공적은행	3.1	64.2	1.8	69.1	13.0	30.5	0.1	43.7	0.0	0.0	0.0	0.0	1.7	9.9	0.5	12.1	124.8
	한국주택금융공사	0.0	0.0	0.0	0.0	0.0	421.6	0.0	421.6	0.0	0.0	0.0	0.0	0.0	12.4	0.0	12.4	434.0
	기타	2.8	10.5	1.5	14.8	3.3	24.8	3.9	32.0	0.2	0.0	0.0	0.2	20.1	0.0	0.0	20.1	67.1
	소계	5.9	74.8	3.3	83.9	16.3	477.0	4.0	497.3	0.2	0.0	0.0	0.2	21.8	22.3	0.5	44.6	625.9
민간	은행	7.3	31.7	3.6	42.6	73.7	132.3	38.4	244.4	1.9	0.0	0.3	2.2	14.5	5.8	8.6	28.9	318.1
	생명보험사	11.4	4.7	0.0	16.1	20.1	3.7	1.9	25.7	0.6	0.0	0.0	0.6	1.4	2.2	0.0	3.6	46.1
	손해보험사	7.8	3.2	13.7	24.7	9.7	2.1	3.2	15.0	0.0	0.0	0.0	0.1	0.4	0.0	0.0	0.5	40.2
	증권사	3.3	1.3	1.4	6.1	3.3	0.5	0.6	4.4	0.5	0.0	0.0	0.5	4.8	0.0	1.4	6.2	17.1
	자산운용사	0.5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0.0	2.9	0.0	0.0	2.9	3.5
소계	30.3	41.0	18.6	90.0	106.8	138.5	44.0	289.4	3.1	0.0	0.3	3.4	24.0	8.1	10.0	42.1	424.9	
총 합계	36.2	115.8	21.9	173.9	123.1	615.5	48.0	786.6	3.3	0.0	0.3	3.6	45.8	30.4	10.5	86.7	1,050.8	
HF ⁵ 제외 총 합계	36.2	115.8	21.9	173.9	123.1	193.9	48.0	365.0	3.3	0.0	0.3	3.6	45.8	30.4	10.5	86.7	629.2	

국민연금 및 ESG채권 발행 제외

2023년 말 총 ESG금융 규모 중 E(환경) 부문은 173.9조 원(총 ESG금융의 16.5%), S(사회)는 786.6조 원(74.9%), G(거버넌스) 3.6조 원(0.3%), ESG통합 86.7조 원(8.3%)로, S(사회)영역의 비중이 절대적

E(환경) 영역

- 공적섹터 48.3%(83.9조 원), 민간섹터 51.7%(90.0조 원)로 민간섹터 비중이 다소 높음
- 공적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한 녹색 대출이 공적섹터 E(환경)영역의 76.6%, E(환경)영역 총액의 36.9%를 차지
- 민간섹터의 경우, 은행들이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 자체기준 해당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한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민간섹터 환경영역의 35.3%)

4. ESG 중 2개 이상의 영역이 결합한 경우 통합으로 분류

5.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ESG채권 발행'과 '국민연금 책임투자 전액'은 설문지 답변으로는 ESG구분이 불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S(사회) 영역

- S(사회)영역은 총 ESG금융의 74.9%로 가장 높은 비중
- 섹터별로 살펴보면 공적섹터가 63.2%(497.3조 원)로 민간섹터 36.8%(289.4조 원)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적섹터의 84.8%, 전체 S(사회)영역의 53.6%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규모 대출(개인대출 421.6조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제외하고도 S(사회)영역 대출은 193.9조 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외 ESG총액(365조 원)의 53.1%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 ESG영역에서 사회(S)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금융기관의 사회(S)대출 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형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제정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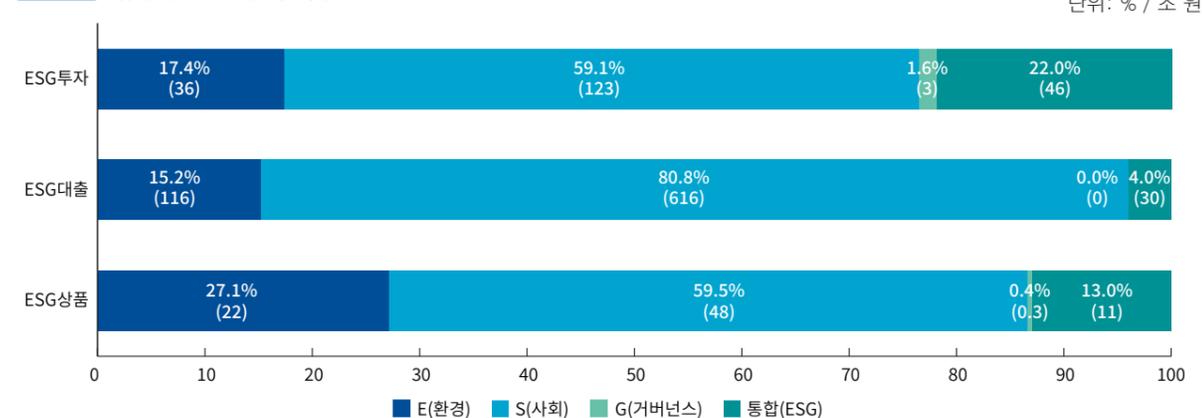
G(거버넌스) & 통합(ESG)

- G(거버넌스)영역의 총 규모는 3.6조 원으로 총 ESG의 0.3%
- E-S, E-G, S-G, E-S-G 등 두 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성된 통합(ESG)영역은 ESG규모의 8.3%(86.7조 원)으로, 공적섹터 51.4%(44.6조 원), 민간섹터 48.6%(42.1조 원)로 분류됨

유형별 ESG영역 비중

- ESG투자
 - 총 208.4조 원 중 E(환경) 36.2조 원(17.4%), S(사회) 123.1조 원(59.1%), ESG통합 45.8조 원(22.0%), G(거버넌스) 3.3조 원(1.6%)으로 사회영역의 규모가 가장 큼
- ESG대출
 - 총 761.8조 원 중 한국주택공사의 개인대출(421.6조 원)을 반영한 S(사회)영역이 615.5조 원으로 총 ESG대출의 80.8%를 차지하고, E(환경)와 ESG통합이 각 15.2%, 4.0%를 기록
 - 한국주택공사의 총 대출액 434조 원(개인, 기업, PF) 제외 시, ESG대출(327.8조 원)은 S(사회)·E(환경)·ESG통합이 각 35.3%, 59.2%, 5.5%로 S(사회)영역의 비중이 상당 폭 하락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향으로 공적금융 비중이 75.4%(574.1조 원), 민간금융 24.6%(187.7조 원)로 집계
- ESG상품
 - 총 80.7조 원 중 S(사회) 59.5%(48조 원), E(환경) 27.1%(21.9조 원), G(거버넌스) 0.4%(0.3조 원), ESG통합 13.0%(10.5조 원)으로 S(사회)영역이 절반 이상 차지
 - 보험, 예·적금, 카드, 펀드(리테일) 등 ESG상품 상세의 특성 상 민간금융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래프 4 유형별 ESG영역 비중



섹터별 ESG금융 규모

표 4 섹터별 전년 대비 ESG금융 규모

단위: 조 원

섹터	기관	ESG 총 규모		ESG투자		ESG대출		ESG채권 발행		ESG금융상품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공적	공적은행	155.4	136.1	17.8	16.8	104.7	90.4	30.5	26.5	2.3	2.4
	국민연금기금	587.2	384.1	587.2	384.1	-	-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581.3	497.4	1.1	0.7	434.0	384.3	146.1	112.4	-	-
	기타	106.7	80.9	25.2	14.2	35.4	27.5	38.1	32.4	8.0	6.8
	소계	1,430.6	1,098.6	631.4	415.8	574.1	502.2	214.8	171.4	10.3	9.2
민간	은행	341.5	300.7	97.4	79.3	169.8	154.4	26.9	23.3	47.3	43.7
	생명보험사	47.8	44.0	33.5	29.0	10.7	12.7	1.7	0.9	1.9	1.4
	손해보험사	39.3	34.9	17.9	15.8	5.4	4.6	0.6	0.6	15.3	13.9
	증권사	20.3	19.4	11.9	12.0	1.9	1.0	0.7	0.6	5.8	5.9
	자산운용사	3.3	3.6	3.3	3.6	-	-	-	-	0.0	0.0
	소계	452.2	402.8	164.1	139.8	187.8	172.7	29.9	25.4	70.4	64.8
합계	1,882.8	1,501.4	795.5	555.6	761.8	674.9	244.7	196.8	80.8	74.0	
국민연금 제외 합계		1,295.6	1,117.4	208.4	171.6	761.8	674.9	244.7	196.8	80.8	74.0

2023년 섹터별 ESG금융규모는 공적 섹터 1,430.6조 원(총 ESG금융규모의 76.0%), 민간 섹터 452.2조 원(24.0%)로 공적 섹터 규모가 더 큰 비중 차지

공적 섹터 | 규모 1,430.6조 원 | 총 ESG규모의 76.0% | 전년 대비 30.2%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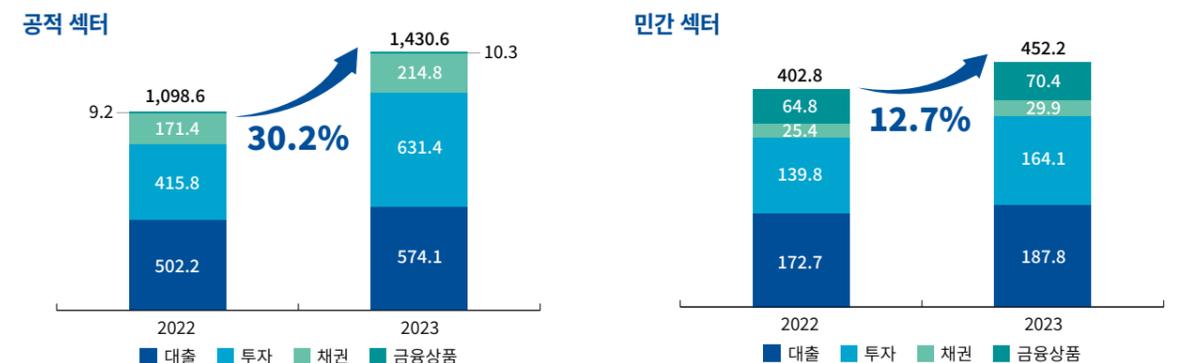
- 2023년 공적 섹터의 ESG금융 규모는 민간금융 규모의 3.2배에 해당
- 주요성장 원인은 공적 섹터의 81.7%를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장(각 203.1조, 83.8조 원 증가)
- 국민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공적 섹터의 ESG금융 규모(262.2조 원) 또한 전년 대비 20.8% 성장. 한국산업은행(성장률 14.0%, 성장액 72.9조 원), 중소기업은행(20.8%, 50.4조 원), 한국수출입은행(5.5%, 32.0조 원) 등 공적은행들의 상승세 반영

민간 섹터 | 규모 452.2조 원 | 총 ESG규모의 24.0% | 전년 대비 12.3% 성장

- 민간 섹터에서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 부문이 전년 대비 1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민간 섹터의 성장을 주도. 특히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169.8조 원(전년 대비 10.0% 성장)을 기록하며 민간 섹터 ESG규모의 90.4%를 차지
- 은행에 이어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증권사도 각 12.6%, 8.5%, 4.3%의 성장률을 기록. 반면 자산운용사는 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래프 5 섹터별 성장률

단위: 조 원



민간 금융그룹의 ESG금융 현황

표 5 금융그룹의 유형별 ESG금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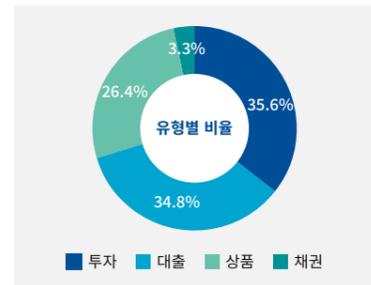
단위: 조 원

금융그룹별 (보고기관수)	총 ESG금융 규모		ESG투자		ESG대출		ESG금융상품		ESG채권 발행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NH농협금융그룹(6)	116.7	120.9	41.5	30.7	40.6	58.5	30.8	28.9	3.8	2.8
신한금융그룹(5)	79.2	48.5	13.2	10.7	57.7	29.4	2.5	3.9	5.8	4.5
KB금융그룹(4)	58.9	52.5	20.9	17.7	16.6	16.1	12.7	10.2	8.7	8.5
하나금융그룹(2)	43.8	42.1	17.5	16.8	19.5	20.9	1.9	1.0	4.8	3.5
우리금융그룹(2)	35.9	28.1	12.8	11.1	19.3	13.4	0.2	0.2	3.6	3.4
DGB금융그룹(4)	6.1	4.9	1.6	1.2	2.8	2.0	1.2	1.3	0.5	0.4
6개 그룹 총계	340.5	297.1	107.5	88.1	156.5	140.2	49.3	45.6	27.2	23.2

2023년 말 6개 금융그룹의 ESG금융 규모는 34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전체 ESG금융에서의 18.1% 차지. 6개 금융그룹 총자산 대비 ESG금융 비중은 13.4%로 2022년 12.1%보다 1.3% 상승

NH농협금융

농협중앙회 | NH농협은행 | NH농협생명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NH투자증권 | NH-Amundi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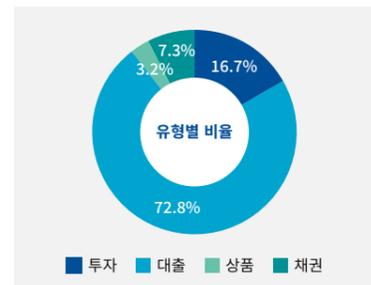


규모 116.7조 원 | 전년 대비 -3.5% | 보고기관 총 자산 대비 비중 7.7% |

- 민간금융 그룹 중 가장 큰 ESG규모 보유
- NH농협은행의 ESG기업대출이 전년 대비 줄면서 그룹의 총 ESG금융 규모가 3.5% 하락. NH농협은행은 그룹 전체 ESG금융의 72.4%를 차지
- 유형별로는 ESG투자가 41.5조 원(금융그룹 ESG규모의 35.6%)이 가장 큼. 이는 농협중앙회가 투자한 대규모 사회적 채권(20조 원)이 반영된 결과. 다음으로 대출 40.6조 원(34.8%), 상품 30.8조 원(26.4%), 채권 3.8조 원(3.3%)의 순서로 나타남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신한투자증권 | 신한자산운용 | 제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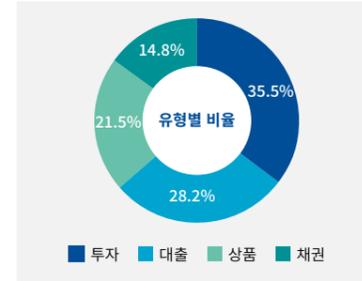
규모 79.2조 원 | 성장률 계산 불가⁶ | 보고기관 총 자산 대비 비중 10.6% |

- 신한금융그룹 ESG금융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그룹의 ESG금융 자산의 93%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57.7조 원(금융그룹 ESG규모의 72.8%), 투자 13.2조 원(16.7%), 채권 5.8조 원(7.3%), 상품 2.5조 원(3.2%)으로 대출이 ESG금융의 대부분을 차지

6. 신한은행의 경우, ESG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는 신규 실행액 기준으로 2023년부터는 잔액 기준으로 제공하였음
이와 같은 내부 집계 기준의 변경으로 성장률 계산이 불가함(타 기관의 연도별 ESG금융 규모는 잔액 기준임)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 KB라이프생명보험 | KB손해보험 |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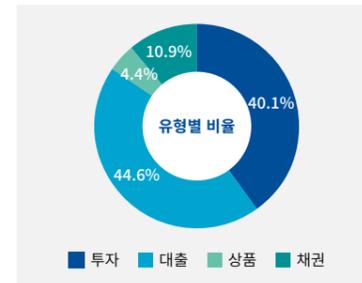


규모 58.9조 원 | 전년 대비 +12.2% | 보고기관 총 자산 대비 비중 7.1% |

- KB금융그룹의 ESG투자는 전년 대비 12.2% 증가
- 그룹 ESG 투자의 87.0%를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모든 유형에서 ESG 투자 규모가 성장하며 전년 대비 11.8% 증가를 기록, 그룹 전체 성장을 견인
- 유형별로 ESG투자 20.9조 원(금융그룹 ESG규모의 35.5%), 대출 16.6조 원(28.2%), 상품 12.7조 원(21.5%), 채권 8.7조 원(14.8%)로 구성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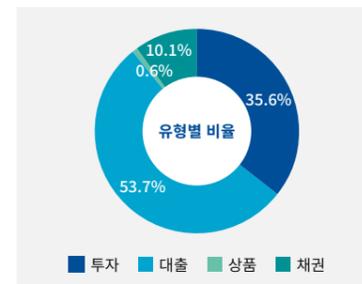


규모 43.8조 원 | 전년 대비 +3.8% | 보고기관 총 자산 대비 비중 8.9% |

-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 ESG금융 규모의 97.0%를 차지
- 하나은행의 ESG금융 규모는 전년 대비 3.8% 성장하였는데, 이는 대출이 다소 저조했던 반면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기록하였기 때문
-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19.5조 원(금융그룹 ESG규모의 44.6%), 투자 17.5조 원(40.1%), 채권 4.8조 원(10.9%), 상품 1.9조 원(4.4%)의 순서로 집계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 우리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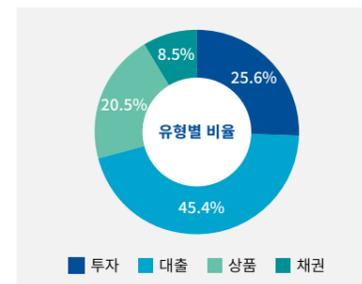


규모 35.9조 원 | 전년 대비 +27.7% | 보고기관 총 자산 대비 비중 7.7% |

- 우리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상품 판매 하락 등으로 주춤하던 대출이 성장하면서 그룹의 2023년 총 ESG금융 규모는 작년 대비 27.7% 성장
- 유형별로는 ESG대출이 19.3조 원(금융그룹 ESG규모의 53.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 12.8조 원(35.6%), 채권 3.6조 원(10.1%), 상품 0.2조 원(0.6%) 순서로 구성
- 우리은행이 그룹 ESG금융의 99% 차지

DGB금융그룹

iM뱅크 | iM라이프생명보험 | iM증권 | iM에셋자산운용



규모 6.1조 원 | 전년 대비 +24.6% | 보고기관 총 자산 대비 비중 4.0% |

- DGB금융그룹의 총 ESG투자 규모는 6.1조 원으로 2022년 대비 24.6% 성장
- iM뱅크는 DGB금융그룹 ESG투자 규모의 97.5%를 보유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대출 2.8조 원(금융그룹 ESG규모의 45.4%), 투자 1.6조 원(25.6%), 상품 1.2조 원(20.4%), 채권 0.5조 원(8.5%)로 구성

(신)재생에너지 금융 규모

표 6 섹터별, 유형별 (신)재생에너지 투자 상세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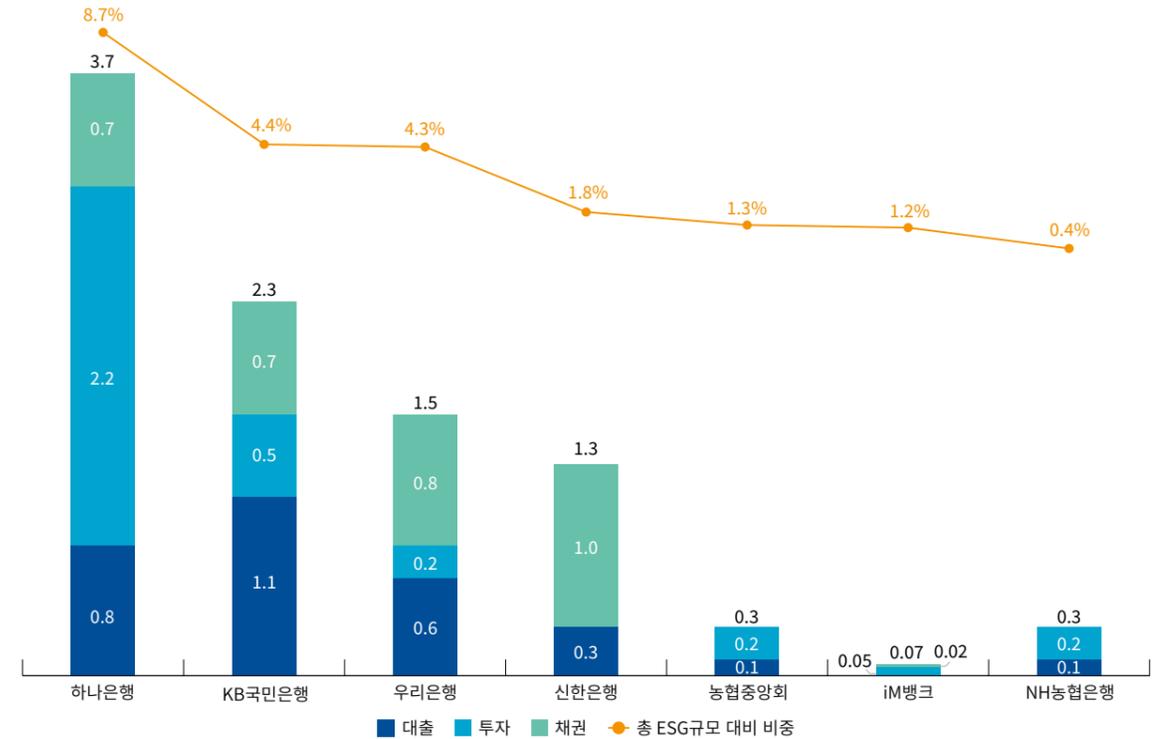
		ESG대출	ESG투자	ESG상품	ESG채권 발행	합계
공적	한국산업은행	3.2	0.1	-	2.3	5.6
	중소기업은행	0.1	0.7	0.0	0.0	0.8
	신용보증기금	10.4	-	-	-	10.4
	기타	-	0.8	-	0.9	1.7
	소계	13.7	1.6	0.0	3.2	18.5
민간	은행	3.9	3.3	0.0	3.3	10.6
	생명보험사	2.3	6.3	-	0.9	9.5
	손해보험사	1.2	4.2	0.0	0.2	5.6
	자산운용사	-	1.5	0.0	-	1.5
	증권사	0.1	1.4	0.5	0	2.0
	소계	7.6	16.8	0.5	4.3	29.2
총 합계	21.4	18.4	0.5	7.5	47.7	

2023년 말 (신)재생에너지 금융 규모는 47.7조 원으로 총 ESG금융 규모의 단 2.5%에 불과, 영역 중 E(환경)부분 금융 규모 173.9조 원 대비 27.4%

- (신)재생에너지 총액 중 민간 섹터에서 지원된 금액은 29.2조 원으로 공적 섹터의 18.5조 원 대비 1.6배에 가까운 수준
- 공적 섹터의 경우 (1) 신용보증기금; (신)재생 설비 기업, 그린 뉴딜 품목 관련 기술 보유 또는 제품 생산 기업 등 중소기업에 제공한 기업대출(10.4조 원)과 (2) 한국산업은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 풍력발전)에 제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투자 등 (총 5.6조 원), 두 기관이 보유한 투자가 공적 섹터 총 투자의 86.0%를 차지
- 민간 섹터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규모가 10.6조 원(총 민간 섹터 규모의 36.3%)으로 가장 크고, 생명보험사 9.5조 원(32.6%), 손해보험사 5.6조 원(19.1%), 증권사 2.0조 원(7.0%), 자산운용사 1.5조 원(5.0%) 순서
-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부문의 경우 (1) 국내외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에 제공한 기업 대출, PF(3.9조 원)과 (ii)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투자(2.5조 원)가 은행부분 총액의 60%를 차지함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모두 ESG투자 중 대체투자 부문의 금액이 5.8조, 3.6조 원(각 부문 총액의 61%, 65%)이 가장 컸는데 구체적 프로젝트는 파악이 어려움
- 아래 그래프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나타냄. 2023년 국내 6개 주요 금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9.4조 원으로 6개 금융기관의 총 ESG투자 대비 평균 3.1% 그침. 즉, 금융 섹터들이 그린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있음에도 실제 (신)재생에너지로의 투자 비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
- 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투자처임.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ESG 투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연적
- 또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 적절한 규제,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됨

그래프 6 주요 금융기관별 재생에너지 투자액과 비중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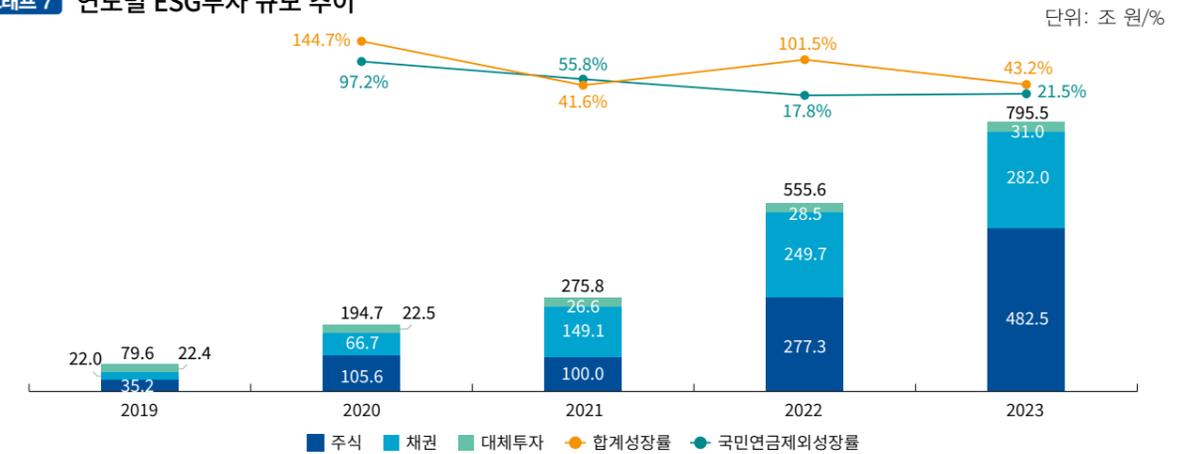
ESG금융 유형별 세부 분석

- ESG투자 21
- ESG대출 25
- ESG채권 발행 30
- ESG금융상품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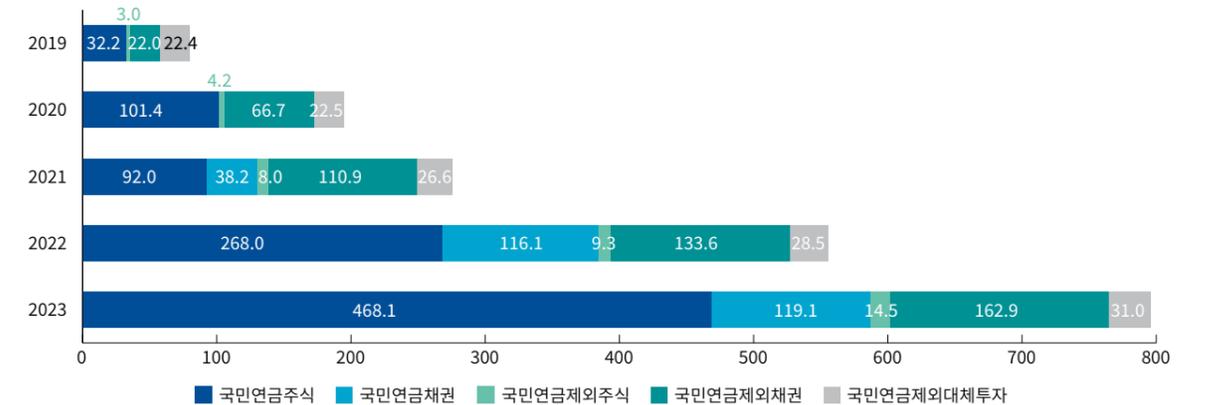
ESG금융 유형별 세부 분석

ESG투자

그래프 7 연도별 ESG투자 규모 추이



그래프 8 연도별 국민연금/국민연금제외 ESG투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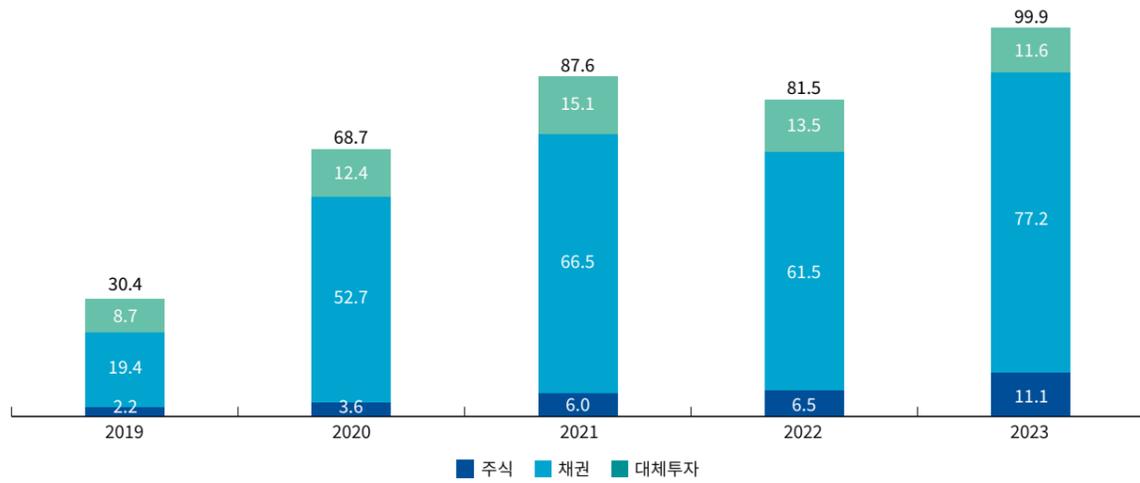


2023년 말 ESG투자 규모는 총 795.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2%(239.9조 원) 성장.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하는 해외 주식 규모(138.5조 원)를 포함하게 된 것이 ESG투자 규모 성장을 견인

- ESG투자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3년 전체 ESG 투자 규모는 약 795.5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3.2% 상승한 수치. 특히 주식 부문의 ESG투자는 전년 대비 74.0%(증가액: 205.2조 원) 급증하였고, 채권 부문의 ESG투자도 전년 대비 12.9%(증가액: 32.3조 원) 증가하여 전체 ESG투자 규모의 성장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2023년 ESG주식투자 규모는 468.1조 원으로 전체 2023년 ESG주식투자 규모의 약 97%를 차지함. 국민연금의 ESG주식투자 규모는 작년 대비 약 200조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까지 국민연금이 반영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하는 해외 주식의 규모(138.5조 원)를 포함시키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국민연금을 제외한 ESG 투자 규모 또한 2023년 20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 이는 총 ESG 투자 규모의 78.2%를 차지하는 채권 투자가 큰 폭(성장액: 29.3조 원, 성장률: 21.9%)으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로, 정부가 ESG채권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금지 지원을 적극 추진한 것이 금융 섹터 전반의 ESG채권 투자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
- 유형별로는 채권 162.9조 원(총 ESG투자의 78.2%), 대체 투자 31.0조 원(14.9%), 주식 14.5조 원(7.0%)으로 구성

그래프 9 연도별 ESG투자 신규 규모 추이(국민연금 제외)⁷

단위: 조 원



2023년 국민연금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ESG투자 신규 규모는 총 99.9조 원(전년 대비 22.6% 성장). 국내 ESG공시 제도 정비 및 ESG채권 발행 및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ESG투자 신규 규모 확대의 원인

- 2022년 잠시 주춤했던 ESG투자 신규 규모(국민연금 제외)는 2023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22.6% 성장한 99.9조 원을 기록. 대체투자 금액은 1.9조 원 감소했지만, 주식과 채권 각각 4.6조 원, 15.7조 원 증가하여 2023년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음
- 신규 투자의 규모가 2022년 하락세(-6.9%)를 기록한 것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채권 발행이 침체되었기 때문. 이후 국제 경기가 회복을 하며 2022년 말 정부가 발표한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국내 ESG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ESG채권 발행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금융기관들의 ESG신규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규모가 성장하게 된 것으로 파악됨

표 7 섹터별 ESG투자 규모

단위: 조 원

		ESG투자		주식		채권		대체투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공적	공적은행	16.8	17.8	1.6	2.0	14.7	15.1	0.5	0.8
	연기금	387.4	592.6	268.8	469.4	118.5	122.8	0.0	0.4
	기타 공적금융	11.6	21.1	2.3	5.8	8.0	13.3	1.4	1.9
	소계	415.8	631.5	272.7	477.3	141.2	151.2	1.9	3.1
민간	은행	79.3	97.4	0.9	0.8	75.7	93.0	2.8	3.6
	보험사(생명보험)	29.0	33.5	0.2	0.4	16.9	20.8	11.9	12.2
	보험사(손해보험)	15.8	17.9	0.1	0.1	6.2	7.8	9.5	10.0
	자산운용사	3.6	3.3	2.4	2.7	1.1	0.5	0.1	0.1
	증권사	12.0	11.9	1.0	1.3	8.7	8.6	2.3	2.0
	소계	139.8	164.1	4.6	5.3	108.6	130.8	26.6	27.9

공적 섹터

| 규모 631.5조 원 | 총 ESG규모의 79.4% | 전년 대비 성장률 51.9%

- 공적섹터의 ESG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51.9% 성장함. 이는 공적섹터 ESG투자의 93.8%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 부문의 ESG투자 규모가 200.6조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국민연금은 2022년에는 ESG투자 적용 자산군을 위탁자산 전체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직접 운용하는 해외 주식의 자산을 포함시키면서 2년 연속 공적섹터 및 전체 ESG투자 규모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전년도에 비해 주식 204.6조 원, 채권 10.1조 원, 대체투자 1.1조 원의 성장을 보이며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

민간 섹터

| 규모 164.1조 원 | 총 ESG규모의 20.6% | 전년 대비 성장률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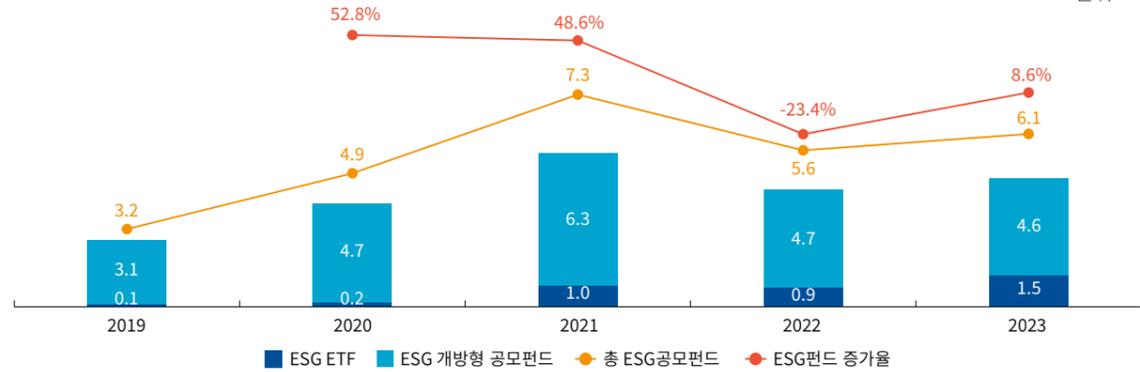
- 민간섹터의 총 ESG투자 규모는 164.1조 원으로 총 ESG투자 규모의 20.6%를 차지함. 2022년도와 동일하게 민간섹터의 ESG투자는 채권 비중(79.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은행이 총 ESG채권투자금액의 71.1%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하는데 중소기업 고용 창출이나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등 S(사회) 분야와 관련된 채권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형별로는 전년 대비 주식 0.7조 원, 채권 22.2조 원, 대체투자 1.3조 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7. 국민연금의 신규 투자 금액의 기준이 모호하여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ESG공모펀드⁸

그래프 10 한국 ESG공모펀드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 2023년 국내 ESG공모펀드 시장은 6.1조 원이며 전체 공모펀드(344.9조원) 대비 1.8% 차지
- 2023년에 전체 공모펀드 시장은 전년도 대비 23.0% 증가했고, ESG공모펀드는 8.6%(0.5조원)의 성장세 기록

자산운용사 점유율

표 8 자산운용사별 ESG공모펀드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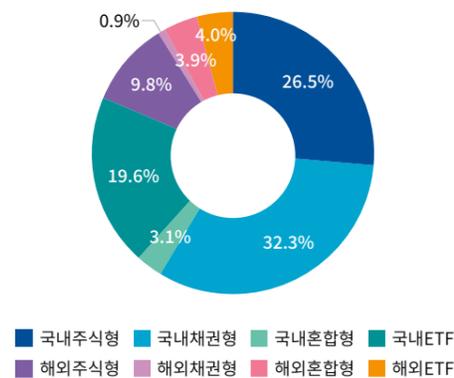
단위: %

자산운용사명	마이더스 자산운용	한화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 자산운용	NH-아문디 자산운용	KB 자산운용	신한 자산운용	키움투자 자산운용	유진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2022	16.2	15.4	15.5	6.7	7.1	6.8	2.7	3.7	3.8	4.3
2023	15.5	12.2	11.4	11.4	9.5	6.9	6.2	3.7	3.3	3.3

- ESG공모펀드 자산운용사별 점유율은 2022년 마이더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각 16.2%, 15.5%로 가장 컸고, 2023년에는 마이더스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이 각 15.5%, 12.2%로 상위에 오름

ESG공모펀드 유형별 분포 및 상위 펀드

그래프 11 ESG공모펀드 유형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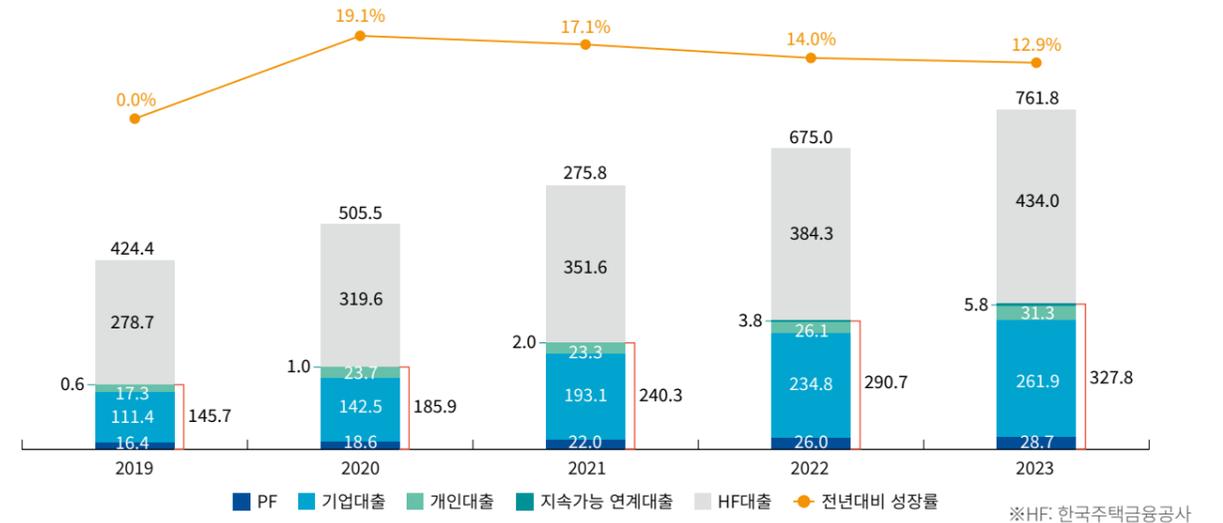
- 2023년 ESG공모펀드의 유형별 규모를 보면, 국내채권형(총 ESG펀드의 32.3%)이 가장 크고, 국내주식형(26.5%), 국내ETF형(19.6%) 순으로 나타남
- ESG 공모펀드 중 규모가 가장 큰 펀드는 마이더스책임투자(주식)로 운용 규모가 0.7조 원을 기록하였고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ESG1(채권)이 0.5조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 외에도 삼성KODEXESG종합채권(A-이상) 액티브(채권) ETF, KBRISEESG사회책임투자(주식)ETF 등 3개의 ETF 펀드가 규모 기준 상위 10개 펀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신규로 설정된 ESG펀드 중 운용규모가 큰 펀드는 신한 SOL2차전지소부장Fn증권ETF(주식)(1,636억 원), 삼성KODEX코스닥글로벌증권ETF(주식) (119억 원) 등 ETF 펀드로 전체 신규펀드 규모의 94.7%에 해당(2024.01.02 기준)

8. ESG공모펀드는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ESG대출

그래프 12 연도별 ESG대출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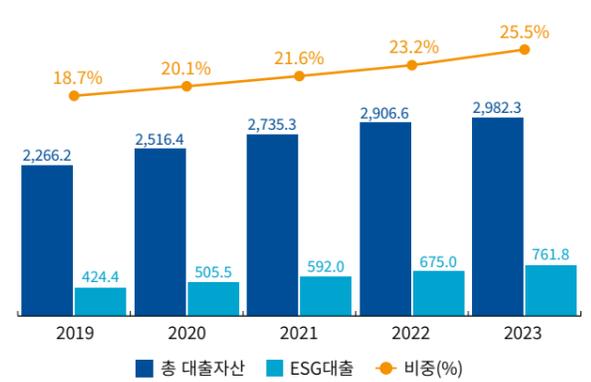
※HF: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 기준 ESG대출 규모는 총 761.8조 원, 전년 대비 12.9% 성장(증가액: 87.0조 원) 국내 총 ESG금융 규모의 40.5%로 ESG투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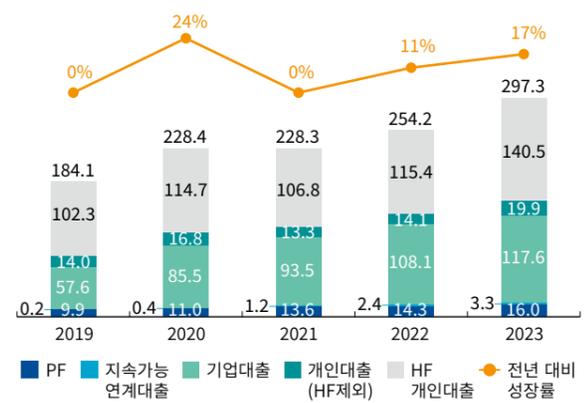
- 2023년 ESG대출 761.8조 원 중 공적부문이 75.4%(574.1조 원), 민간부문이 24.6%(187.7조 원)를 차지
- 단, 총 ESG대출 규모의 57%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⁹의 ESG대출 434조 원 제외 시, ESG대출 규모는 327.8조 원으로 전년(290.7조 원) 대비 12.8% 성장(증가액: 37.1조 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제외 시 총 ESG대출 327.8조 원 중 민간부문이 57.3%(187.7조 원), 공적부문이 42.7%(140.1조 원)를 차지
- 지속가능연계대출의 경우 2023년 말 잔액 기준 5.8조 원(전체 ESG대출 규모의 0.8%)으로 아직 규모는 작으나 성장세를 보임. '23년 실행기관은 신한은행(3.6조 원), KB국민은행(9,053억 원), 전북은행(8,833억 원), 중소기업은행(4,564억 원)

9. 한국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HF)의 2023년 ESG대출은 434조 원으로 개인대출(421.6조 원), 기업대출(6.5조 원), PF(5.9조원)로 구성됨. 특히, HF의 개인대출에는 보증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보증 등이 해당됨. HF는 기관의 설립목적이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이기 때문에 ESG의 S(사회) 측면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임. 따라서 본 보고서의 ESG대출 금액 중 HF의 대출 금액은 별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음

그래프 13 총 대출자산 대비 ESG대출 비중 단위: 조 원/%



그래프 14 상품별 ESG신규대출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 2023년 응답기관의 총 대출 자산 대비 ESG대출 비중 25.5%(2019년: 18.7%, 2020년: 20.1%, 2021년: 21.6%, 2022년: 23.2%)
- 2023년 ESG신규대출 금액은 297.3조 원으로 2019년(184.1조 원) 대비 61.5% 성장
 - 2023년 ESG신규대출 금액 297.3조 원의 47.3%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140.5조 원), 39.6%는 기업대출(117.6조 원)이 차지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급증하면서 2020년 ESG신규대출 금액이 전년 대비 24.0% 성장했음. 다음해인 2021년에는 지원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이 주춤했다가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영역별 ESG대출

표 9 영역별 ESG대출 규모 단위: 조 원

영역	구분	환경(E)		사회(S)		ESG통합		2023 합계	2022 합계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공적	공적은행	64.2	54.5	30.5	36.2	9.9	5.1	104.7	95.8
	연기금	10.4	2.4	24.9	0.1	0.0	0.0	35.3	2.5
	기타(HF제외)	0.1	1.0	0.0	18.6	0.0	0.0	0.1	19.6
	HF	0.0	0.0	421.6	384.3	12.4	0.0	434.0	384.3
	소계	74.8	57.9	477.0	439.2	22.3	5.1	574.1	502.2
민간	은행	31.7	22.9	132.3	129.6	5.8	1.9	169.8	154.4
	생명보험사	4.7	7.1	3.7	5.3	2.2	0.2	10.7	12.7
	손해보험사	3.2	2.9	2.1	1.3	0.0	0.5	5.4	4.6
	증권사	1.3	1.0	0.5	0.0	0.0	0.0	1.8	1.0
	자산운용사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41.1	33.9	138.5	136.2	8.1	2.6	187.7	172.8	
합계	115.8	91.8	615.5	575.4	30.4	7.7	761.8	675.0	
HF 제외 합계	115.8	91.8	193.9	191.1	18.0	7.7	327.8	290.7	

※HF: 한국주택금융공사

ESG대출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총 761.8조 원 중 사회(S)영역이 615.5조 원(총 ESG대출의 80.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환경(E)영역 115.8조 원(15.2%), ESG통합 30.4조 원(4.0%) 순으로 나타남

전체 ESG대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출 금액 434조 원¹⁰ 제외 시 총 ESG대출 규모는 327.8조 원이며, 환경(E)영역이 115.8조 원(59.2%)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사회(S)영역 193.9조 원(35.3%), ESG통합 18조 원(5.5%) 순으로 나타남

10.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대출 금액 434조 원 중 사회(S)영역 대출은 421.6조 원으로 전액 개인대출 상품이고, ESG통합 대출 12.4조 원은 기업대출(6.5조 원)과 PF(5.9조 원)로 구성됨. 환경(E)영역 대출은 실행하지 않음

환경(E)영역

| 규모 115.8조 원 | 전년도 91.8조 원 대비 26.1% 성장 |

- 환경(E)영역 공적금융 부문은 74.8조 원으로 전년도 57.9조 원 대비 26.1% 성장
- 환경(E)영역 공적금융 부문의 85.9%는 공적은행에서 제공된 64.2조 원으로 한국산업은행 37.8조 원, 한국수출입은행 19.5조 원, 중소기업은행 6.9조 원으로 구성
- 환경(E)영역 민간금융 부문은 41.1조 원으로 전년도 33.9조 원 대비 21.1% 성장
- 환경(E)영역 민간금융 부문의 77.3%는 민간은행에서 제공된 31.7조 원으로 민간 주요 환경(E)영역 대출 실행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ESG 대출 규모 상위 기관 파트에서 다름

사회(S)영역

| 규모 615.5조 원 | 전년도 575.4조 원 대비 7.0% 성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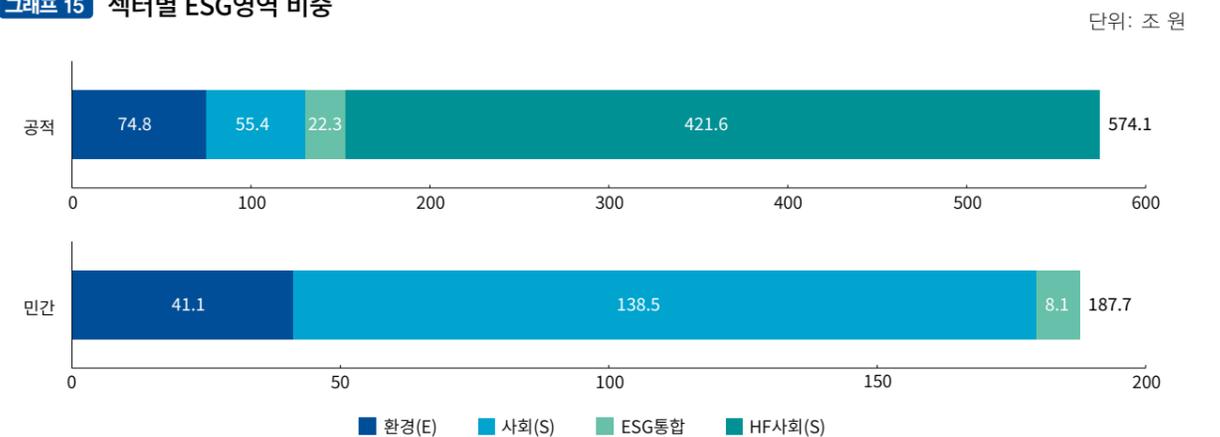
- 사회(S)영역 공적금융 부문은 477조 원으로 전년도 439.2조 원 대비 8.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출금액을 제외한 사회(S)영역 공적금융 부문은 55.4조 원으로 전년도(54.9조 원) 대비 0.9% 성장
- 사회(S)영역 민간금융 부문은 138.5조 원으로 전년도 136.2조 원 대비 1.7% 성장
- 사회(S)영역 민간금융 부문의 95.5%는 민간은행에서 제공된 132.3조 원으로 민간 주요 사회(S)영역 대출 실행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ESG대출 규모 상위 기관 파트에서 다름

ESG통합 대출

| 규모 30.4조 원 | 전년도 7.7조 원 대비 294.8% 성장 |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이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를 두 개 이상 결합하여 분류한 경우 ESG통합으로 분류
- 민간금융 부문에서 8.1조 원, 공적금융 부문에서 22.4조 원 제공됨
-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ESG대출 적용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ESG통합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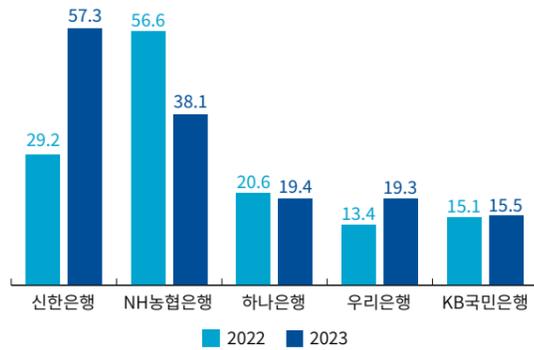
그래프 15 섹터별 ESG영역 비중 단위: 조 원



민간 ESG대출 규모 상위 기관

그래프 16 민간 ESG 대출 규모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 원



- 2023년 말 잔액 기준 전체 ESG대출 실행금액이 가장 큰 민간금융 기관은 신한은행(57.3조 원), 농협은행(38.1조 원), 하나은행(19.4조 원), 우리은행(19.3조 원), KB국민은행(15.5조 원)으로 나타남
- 환경(E)영역 대출 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농협은행(10.6조 원)이며 그 다음으로 KB국민은행(7.5조 원), 우리은행(5.7조 원), 신한은행(2.4조 원), 삼성화재해상보험(2.3조 원) 순으로 나타남
- 사회(S)영역 대출 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한은행(51.3조 원)이며 그 다음으로 농협은행(27.5조 원), 하나은행(17.3조 원), 우리은행(13조 원), 부산은행(10.1조 원) 순으로 나타남
- 환경(E), 사회(S) 세부영역 분석에서 ESG통합 분류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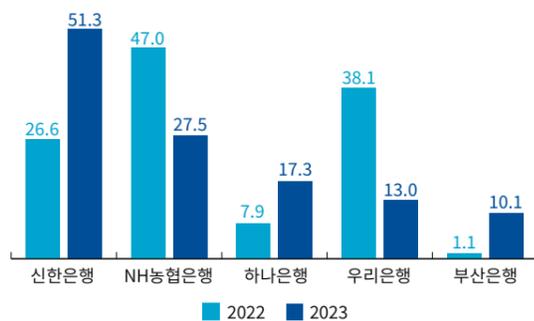
그래프 17 민간 환경(E)영역 대출 규모 상위 5개 기관

단위: 조 원



그래프 18 민간 사회(S)영역 대출 규모 상위 5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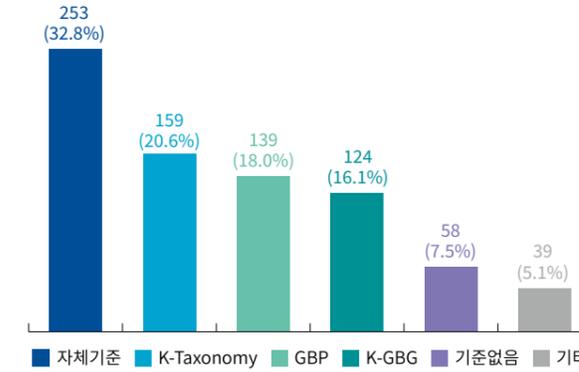
단위: 조 원



ESG대출 적용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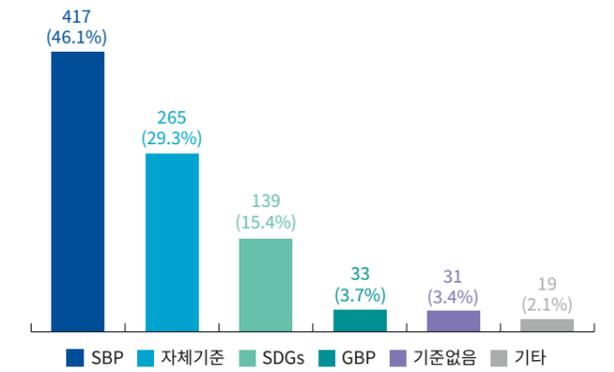
그래프 19 환경(E)영역 대출 적용 분류체계

단위: 건(%)



그래프 20 사회(S)영역 대출 적용 분류체계

단위: 건(%)



환경(E)영역 대출 적용 분류체계

- 2023년 말 기준 환경(E)영역 대출 772건에 적용된 분류체계 중 금융기관 자체기준이 253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159건(20.6%),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139건(18.0%), 한국형 녹색채권가이드라인(K-Green Bond Guidelines, K-GBG) 124건(16.1%)이 뒤를 이었음.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또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

사회(S)영역 대출 적용 분류체계

- 2023년 말 기준 사회(S)대출 904건에 적용된 분류체계 중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 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s, SBP)이 417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기준 265건(29.3%),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39건(15.4%), 녹색채권원칙(GBP) 33건(3.7%) 순으로 나타남
- 사회(S)영역 또한 국내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대출 실행 시 적용하는 기준이 각각 다름. 한국형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

표 10 환경(E)영역 및 사회(S)영역 대출 사례

구분	사례
환경(E)영역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관리,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촉진 등
사회(S)영역	사회인프라시설, 양질의 교육,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소액금융 지원 등을 통한 고용 창출, 상생지원(구조조정, 폐업, 코로나 지원 등), 저소득계층/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ESG채권 발행

ESG채권 유형 상세

표 11 ESG채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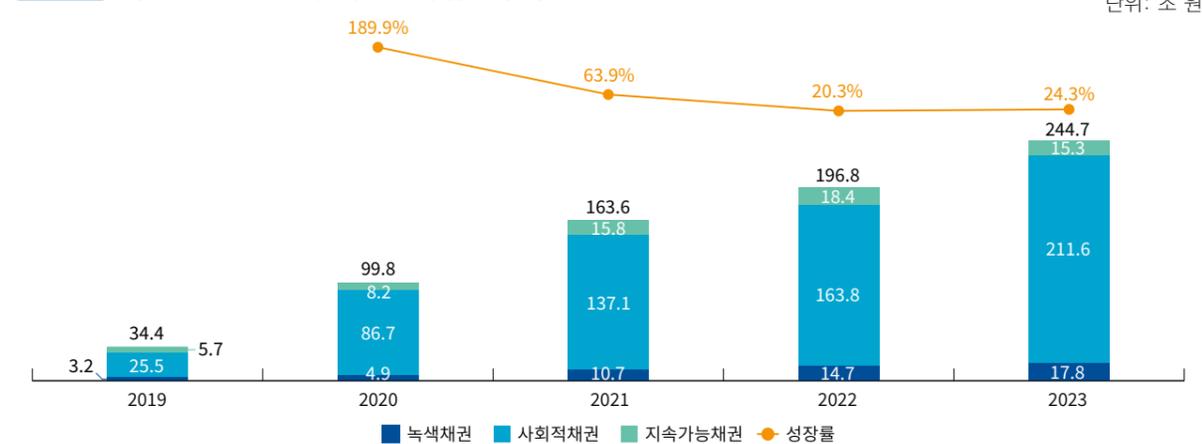
채권 유형	세부 내용	채권 원칙 종류
녹색채권	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녹색채권원칙(GBP),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자체기준 등
사회적채권	인프라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사회적채권원칙(SBP),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SBG), 자체기준 등
지속가능채권	환경, 사회 개선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녹색채권원칙(GBP), 지속가능채권원칙(SBG),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자체기준 등
지속가능연계채권	ESG 목표 설정과 연계하여 채권에 대한 이자율 산정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SLBP)

ESG채권 발행이란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특수 목적 채권

-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 즉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으로 구분. 국내의 경우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지난 5년간 발행 실적이 0건으로 사실상 3가지 유형만 발행
- 2023년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은 건수 기준으로 총 1,408건이며 이 중 사회적채권이 1,306건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은 각 50건, 52건으로 구성
- 사회적채권 발행 시 적용된 원칙에는 사회적채권원칙(SBP)이 1,282건으로 98% 이상을 차지하였고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SBG)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녹색채권원칙(GBP)이 26건, 자체기준(제3자 검증)이 18건 순서
- 녹색채권의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건은 11건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

유형별 ESG채권 발행

그래프 21 각 연도 말 ESG발행 채권 잔액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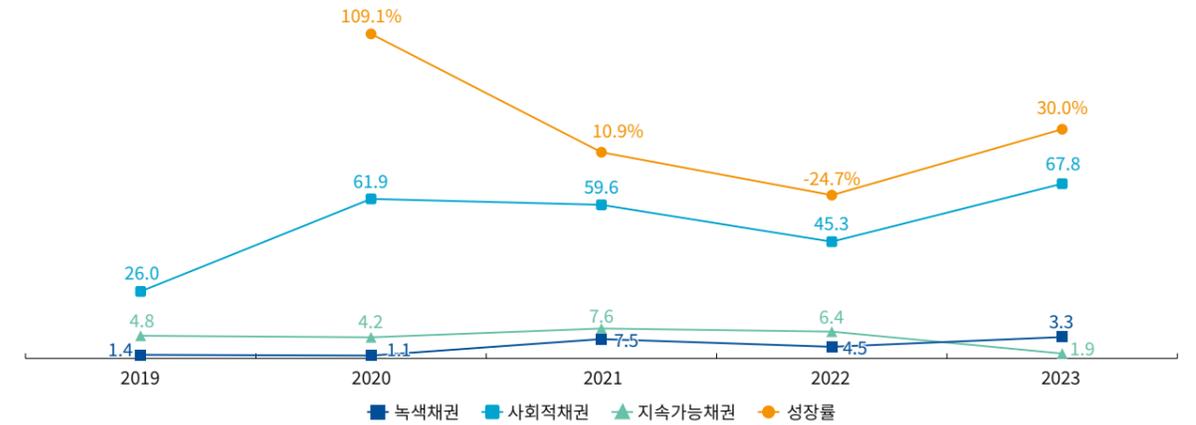


2023년 말 채권 발행 규모(잔액 기준)는 총 규모 244.7 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3% 증가

-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 시 ESG 관련한 활동에 대해 핵심성과지표(KPI)를 정하고 이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과목표(SPT)를 약속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5년간 발행 보고가 없었음
- 이는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사용처가 ESG여부에 부합되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우며 또한 목표 달성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금융기관들이 발행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래프 22 연도별 ESG채권 발행 신규 금액 추이

단위: 조 원



- 2022년 전년 대비 24.7%의 하락세를 보였던 ESG채권 신규 발행액은 2023년 말 73.0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0%의 증가율을 기록
- 이는 잠시 주춤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채권 발행액이 2023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채권 발행 규모의 성장을 견인하였기 때문(2023년 발행액: 40.0조 원 vs. 2022년 23.5조 원)
- 채권종류별 신규 발행 금액은 사회적채권 67.8조 원, 녹색채권 3.3조 원, 지속가능채권은 1.9조 원 금액으로 사회적채권이 92.9%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공급 관련 채권 발행 증가의 영향

섹터별 ESG채권 발행 분석

표 12 2023년 말 기준 섹터별 ESG채권 발행 분류

단위: 조 원

섹터 유형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합계
공적	13.9	199.6	1.3	0.0	214.8
민간	3.9	12.0	14.0	0.0	29.9
합계	17.8	211.6	15.3	0.0	244.7

총 ESG채권 발행 규모 중 공적섹터 214.8조 원, 민간섹터 29.9조 원으로 공적섹터의 규모가 7배 이상 큼

공적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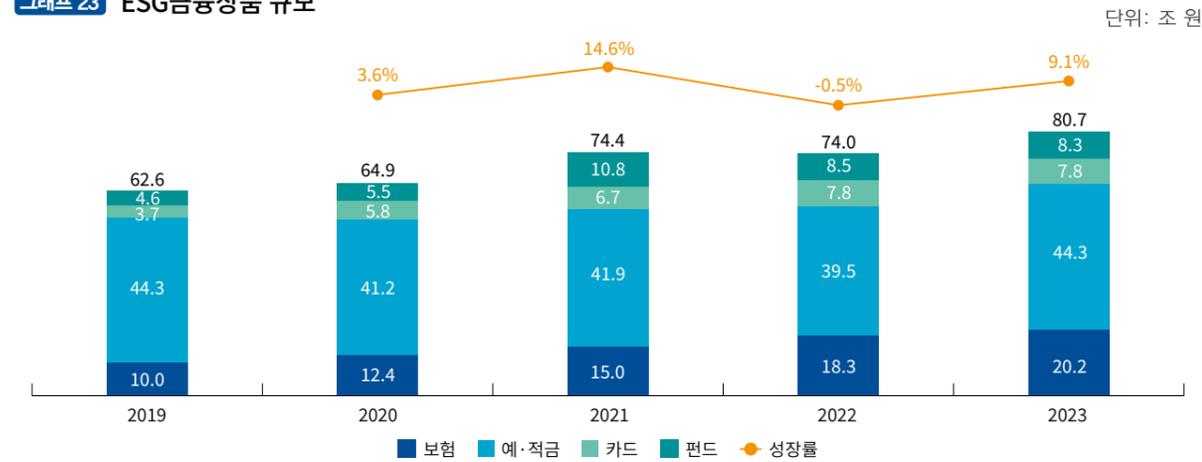
- 공적 섹터의 ESG채권 발행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21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3% 증가
- 채권 종류별로 보면 사회적채권 199.6조 원, 녹색채권 13.9조 원, 지속가능채권 1.3조 원으로 사회적채권이 92.9% 차지. 사회적채권의 74.8%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공급 자금 조달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총 146.1조 원)

민간 섹터

- 민간 섹터의 ESG채권 발행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2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

ESG금융상품

그래프 23 ESG금융상품 규모



ESG금융상품이란 가입자의 ESG 관련 활동과 연계하여 우대금리 제공, 보험료 할인, 감면,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줌으로써 ESG실천을 장려하는 각종 예금 및 금융 상품으로 총 ESG금융 규모의 4.3% 차지

- 2023년 ESG금융상품 규모는 80.7조 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
- 유형별로는 예·적금(2023년 말 기준 44.3조 원), 보험(20.2조 원), 펀드(8.3조 원), 카드(7.8조 원)로 구성되며, ESG금융상품의 80%를 차지하는 예·적금 및 보험의 증가(각 12.3%, 10.6%)가 ESG금융상품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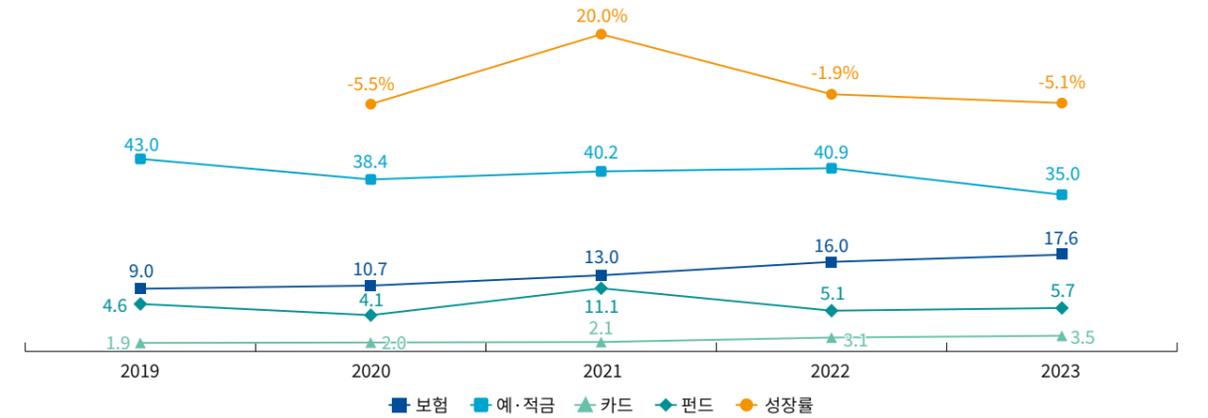
표 13 2023년도 영역별 ESG금융상품 규모 분류

섹터 유형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ESG통합	합계
공적	5.8	4.0	0.0	0.5	10.3
민간	16.1	44.0	0.3	10.0	70.4
합계	21.9	48.0	0.3	10.5	80.7

- 공적과 민간 모두 S(사회) 영역 관련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데, 공적 섹터에서는 우정사업본부(총 공적 섹터 사회영역의 97.5%), 민간 섹터에서는 NH농협은행(총 민간 섹터 사회영역의 총 59.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S(사회)영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영역이 E(환경)로 2023년 말 기준 총 21.9조 원(공적 5.8조 원, 민간 16.1조 원)
- 총 E(환경) 규모의 84.9%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 경우 주행거리 특약, 페이퍼리스 증권 발송 특약 등 환경과 관련된 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비중이 가장 큼(총 민간 규모의 73.1%)

그래프 24 연도별 ESG금융상품 신규 금액 추이

단위: 조 원



- 2023년 말 기준 ESG금융상품 신규 판매 금액은 총 61.7조 원(예·적금 35.0조 원, 보험 17.6조 원, 펀드는 5.7조 원, 카드는 3.5조 원)으로 2022년의 64.9조 원 대비 5.1% 하락
- 이는 ESG금융 신규 실행액의 57.0%를 차지하는 예·적금 판매액이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금리가 안정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7% 하락하였기 때문

유형별 ESG금융상품

2023년 말 기준 ESG금융상품은 예·적금(44.3조 원), 보험(20.2조 원), 펀드(8.3조 원), 카드(7.8조 원)로 구성되며 이 중 예·적금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ESG예·적금

- ESG 예·적금은 ESG목적에 해당하는 상품 혹은 가입자의 활동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
- 2023년 말 기준 44.3조 원으로 총 ESG금융상품의 54.9% 차지
- 예·적금 규모는 전년 대비 12.3%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2022년 예·적금의 하락세에 대한 기저 효과와 예·적금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은행의 예·적금 상품(농업, 농촌 및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하는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등)의 꾸준한 판매의 결과
- 2023년 말 기준 예·적금 잔액 규모 상위 기관은 농협은행(26.3조 원), KB국민은행(8.8조 원), 우정사업본부(3.6조 원)의 순서

ESG보험

- ESG보험은 주로 가입자의 활동에 따른 특약(운행거리 실적에 따른 보험료 환급 특약 등)과 가입이 어려운 대상에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
- 2023년 말 기준 2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총 ESG금융상품의 25.1% 차지
- 2023년 말 기준 보험 잔액 규모 상위기관은 DB 손해보험(7.2조 원), 삼성화재해상보험(3.7조 원), 현대해상화재보험(2.9조 원)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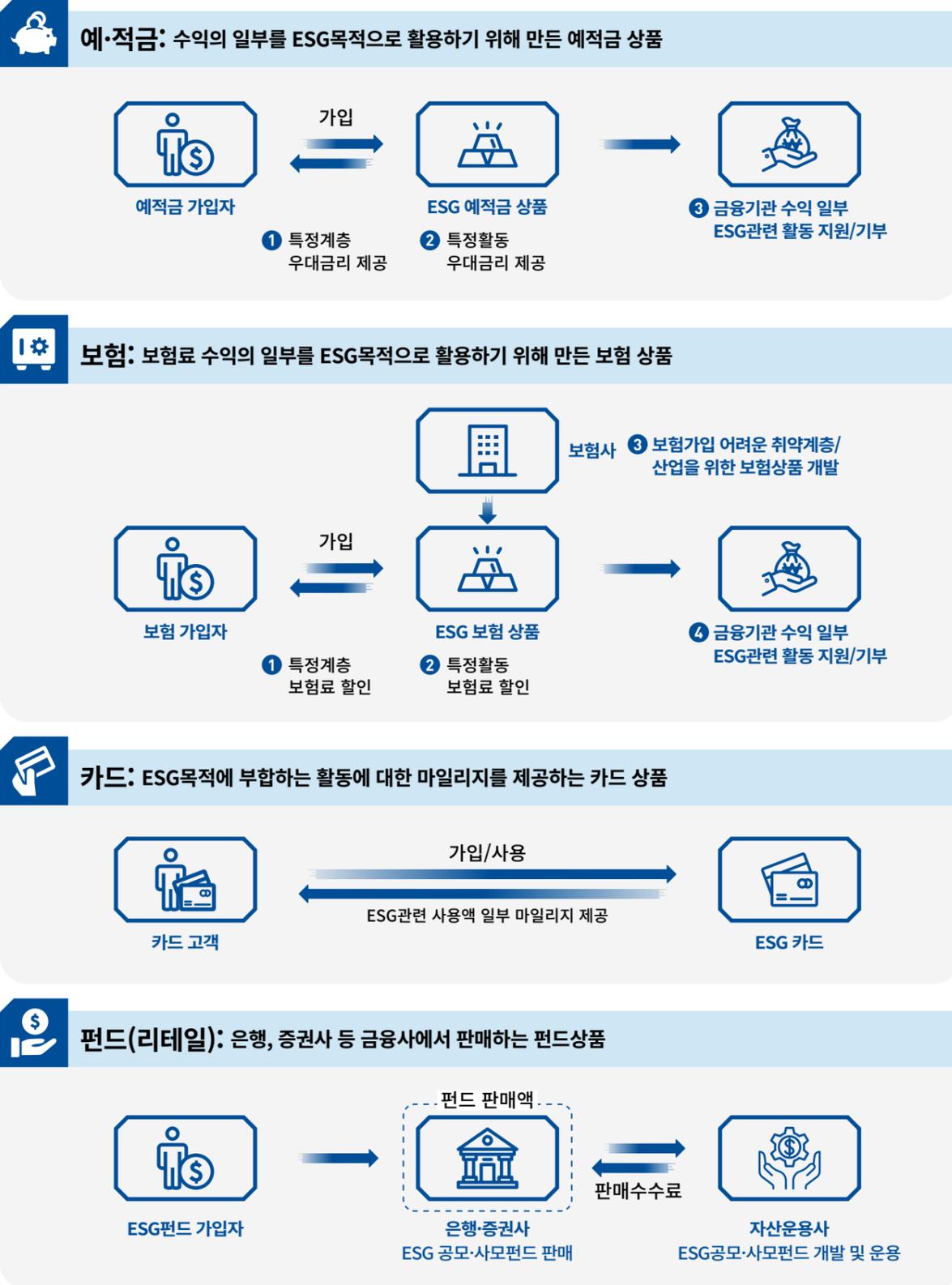
ESG펀드(리테일)

-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를 통해 판매하는 ESG요소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공모·사모펀드 상품
- 2023년 말 기준 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며 총 ESG금융상품의 10.3% 차지
- 2023년 말 기준 펀드 잔액 규모 상위기관은 신한투자증권(1.3조 원), KB국민은행(1.2조 원), 신한은행(0.5조 원) 순서

ESG카드

- ESG 카드는 카드 사용자가 ESG관련 활동에 사용할 시 할인 혜택이나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상품
- 2023년 말 ESG 카드 총액 7.8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 ESG금융상품의 9.7% 차지
- 2023년 말 기준 ESG카드 잔액 규모 상위기관은 NH농협은행(2.5조 원) 부산은행(1.6조 원), 우정사업본부(1.3조 원) 순서

그림 1 ESG금융상품 유형별 세부설명



ESG금융 이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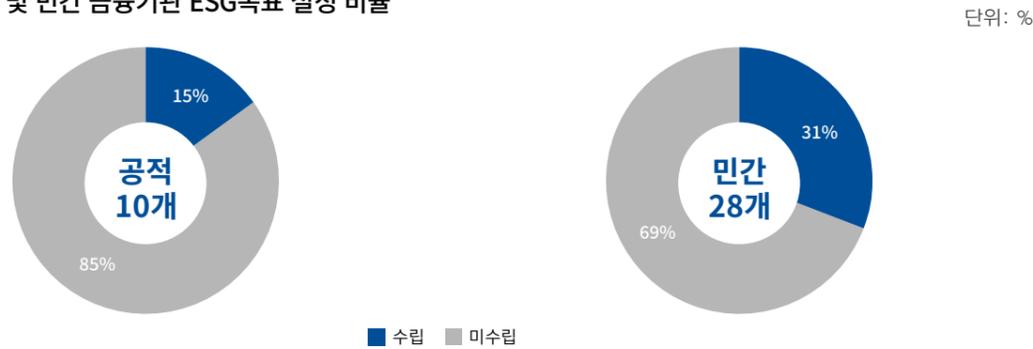
ESG금융 목표 현황	36
민간은행의 녹색여신 현황	41
국민연금의 ESG투자	43

ESG금융 이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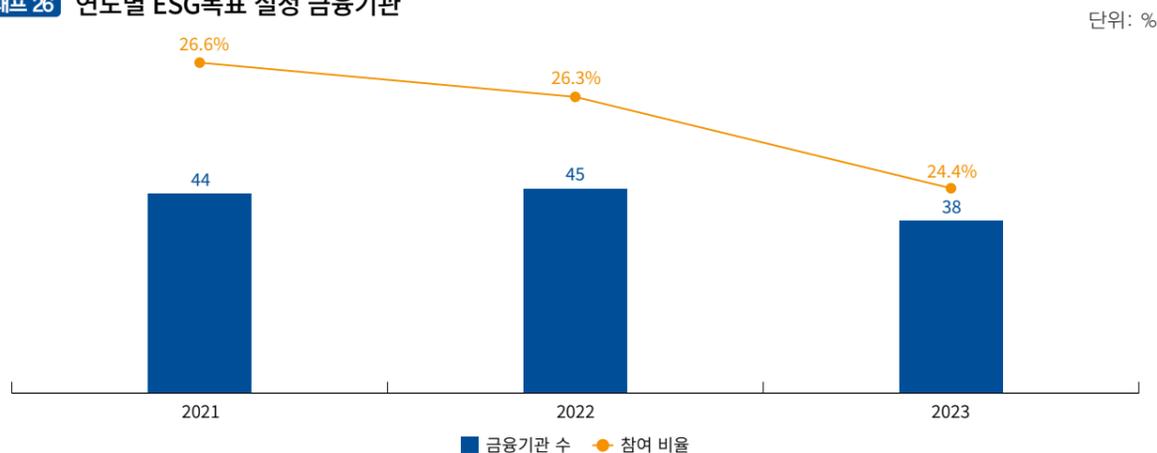
ESG금융

ESG금융 목표 현황

그래프 25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 ESG목표 설정 비율



그래프 26 연도별 ESG목표 설정 금융기관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총 156개 금융기관 중 24.4%에 해당하는 38개 기관이 ESG금융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6%(44개)와 2022년 26.3%(45개)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ESG금융 목표를 설정한 기관들은 목표 수립 기준으로 '목표연도 잔액기준'이 14개, '기타' 10개, '목표연도 투입금액'이 9개, '투입자금 누적금액' 5개로 각 기관 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의 목표 연도가 달라 명확한 비교는 불가하지만 총 목표 금액의 합계는 896.5조 원(상품개수, % 기준 제외)이며 각각 '기타' 275.8조 원, '목표연도 잔액기준' 209.2조 원, '목표연도 투입금액' 210.7조 원, '투입자금 누적금액' 200.9조 원으로 분류된다. 2022년의 총 목표 금액의 합계는 605조 원으로 작년 대비 규모가 48.2% 증가해 ESG금융 목표를 설정한 기관들은 ESG금융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융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ESG금융의 효율적인 확산과 성과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금융기관 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지고 ESG금융 목표 달성의 진전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중복된 데이터 보고가 발생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략이 수립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 기관은 통일된 ESG금융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표 14 섹터별 개별 ESG금융 목표 수립 기관¹¹

단위: 조 원

		금융기관명	목표 연도	목표 금액	목표 기준
공적	연기금	신용보증기금	2024	13.8	기타
		공무원연금기금	2023	1.4	잔액기준
		근로복지기금	2023	0.0	투입금액
	공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30	205.8	기타
		한국산업은행	2030	154.0	투입자금 누적금액
		중소기업은행	2030	38.0	투입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2029	162.6	투입금액
		우정사업본부	2024	16.3	잔액기준
		군인공제회	2024	1.0	잔액기준
민간	은행	NH농협은행	2030	101.9	잔액기준
		KB국민은행	2030	50.0	잔액기준
		하나은행	2030	28.0	투입자금 누적금액
		우리은행	2023	9.0	투입금액
		신한은행	2023	1.0	투입금액
	보험사 (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2030	20.0	잔액기준
		NH농협생명보험	2030	7.8	잔액기준
		한화생명보험	2030	6.0	기타
	보험사 (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2030	15.5	투입자금 누적금액
		KB손해보험	2030	4.4	잔액기준
		현대해상화재보험	2030	4.0	기타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2025	45.0	기타
		아이엠증권	2024	2.4	투입자금 누적금액
		KB증권	2024	1.5	잔액기준
	자산운용사	NH-Amundi자산운용	2025	4.1	기타
		BNK자산운용	2024	0.3	잔액기준

11. * 섹터별 목표 금액 상위 기관 3개를 가져왔으며, 민간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목표를 수립한 5개 은행을 가져옴
 ** 국민은행: KB금융그룹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용 평잔의 5% 내외
 **** 삼성증권: 2025년 상품 라인업 100개까지 확대

민간 금융그룹의 ESG금융 목표

표 15 민간 금융그룹 ESG금융 목표

단위: 조 원

	목표 연도	목표 금액	목표 기준
NH농협금융그룹	2030	120.0	잔액기준
우리금융그룹	2030	100.0	투입금액
하나금융그룹	2030	60.0	투입자금 누적금액
KB금융그룹	2030	50.0	잔액기준
신한금융그룹	2030	30.0	투입자금 누적금액
DGB금융그룹	2024	6.4	투입자금 누적금액

국내 민간 금융그룹 중 우리, 하나, KB금융그룹은 4년 동안, 신한금융그룹은 3년 동안 같은 ESG금융 목표를 보고하고 있다. NH농협금융그룹의 경우, 작년과 다른 목표 기준을 세우고 목표 금액은 4배 증가하였다. 2024년 상반기에 시중으로 편입된 DGB금융그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인 ESG금융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금융그룹의 목표 중 2023년 기준 ESG신규 자금 투입 목표의 총 금액은 37.6조 원으로 NH농협금융그룹 8.0조, 우리금융그룹 10.0조, 하나금융그룹 6.0조, KB금융그룹 4.6조, 신한금융그룹 2.6조, DGB금융그룹 6.4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그룹들(세부 계획 미정인 그룹 제외)은 환경(E)부문에 111.0조 원을 사회(S)부문에 127.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부문의 목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두 부문에 대한 금융그룹들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비슷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그룹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투자 목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용 창출, 서민 주택 공급, 지역사회 지원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금융그룹의 투자 계획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ESG는 사회적 요구, 기술 발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탈석탄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탈석탄을 넘어 탈화석연료로 확대되었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이나 생물다양성 보호와 같은 영역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급부상되기도 했다. 따라서, ESG금융 목표는 환경 변화나 시장 상황, 새로운 규제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ESG금융 목표를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한국 금융그룹이 변화하는 ESG상황에 대한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국내 금융그룹의 대응에는 단순히 금융권 의지의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신뢰성 부족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넷제로, 재생에너지 지원, ESG투자 활성화와 같은 중장기 목표를 선언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이며 정책의 잦은 변경이나 실행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는 금융기관이 ESG전략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그룹이 보다 진취적인 ESG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업계가 ESG금융의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6 민간 금융그룹 ESG금융 비전, 목표, 실행과제

금융그룹	비전	목표	실행과제
NH농협금융그룹	미래를 만드는 시작, 농협 금융을 만나는 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E) : K-Taxonomy의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여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정의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 사회(S) : 서민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 혁신, 신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 금융까지, 2030년까지 90조원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E) : 친환경 프로젝트 및 탄소중립 핵심기술 보유 기업, 친환경 농업분야 등에 여신, PF, 자산운용 영역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및 투자를 집행하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 사회(S) :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여신, PF, 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
우리금융그룹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 (Good Finance for the N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an Zero 100 (※ 2030년까지 ESG 금융 100조원 지원,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 Zero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경영 확대 : 녹색금융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환경경영 관리체계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 증대, 인권 및 다양성 존중 문화 확립 투명경영 강화 : ESG금융 관리체계 강화, 투명한 ESG 정보 공시, ESG 거버넌스 고도화
하나금융그룹	Big Step for Tomorrow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룹의 큰 발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 60 (2030년까지 녹색 및 지속가능부문 60조원 여신, 투자 및 자금조달) Zero & Zero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배출 Zero 달성 및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Z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 핵심전략 방향에 따른 9대 실행과제 추진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 촉진,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투명성, 책임경영기반 의사결정)
KB금융그룹	KB Green Wave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ESG금융상품 50조원 달성 계획으로, 이중 친환경 투·융자는 25조원을 목표로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 국가 탄소중립 추진 및 K-Taxonomy와 연계한 친환경 투·융자 확대 저신용·저소득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상품 확대 지배구조 우수기업 상품·투자 확대, 고객 참여형 ESG 특화상품 출시
신한금융그룹	Do the Green Thing for a Wonderful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친환경 금융 30조원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기술 금융지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금융지원, 친환경 고객 지원 촉진, 자원순환 관련 금융지원 추진
DGB금융그룹	iImpact 금융을 선도하는 ESG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금융을 통한 기업 전반의 ESG 경영 장려 및 그룹의 장기적인 수익성,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 고도화 및 혁신 금융 강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 ESG 핵심가치를 그룹 내부 경영시스템, 상품 및 서비스, 여신 및 투자 프로세스 등에 통합하여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지속가능금융 확대하기 위해 수립하여 지속가능금융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기1회) 모니터링하고 ESG 금융 성과와 연계된 보상을 강화하여 계열사들의 실천을 독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자금 조달 현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¹²

- 1 '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 원의 녹색자금 공급
- 2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30년까지 총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 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 3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 원), 「혁신성장펀드」(5조 원), 「성장사다리펀드」(1조 원)와 함께 '30년까지 기후 기술 육성에 총 9조 원 투자

표 17 미래에너지펀드 1단계¹³ 자금 구조

단위: 억 원

은행(그룹) 명	투자 규모	비율
KDB산업은행	2,520	20%
NH농협은행	2,016	16%
KB국민은행	2,016	16%
신한은행	2,016	16%
우리은행	2,016	16%
하나은행	2,016	16%

표 18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의 ESG금융목표 반영 여부

단위: 조 원

은행(그룹) 명	반영 규모	금액
KDB산업은행	2024	0.3
NH농협금융그룹	2024	0.2
우리금융그룹	2024~2030	0.4
하나금융그룹	미정	
KB금융그룹	미정	
신한금융그룹	2024~2030	1.7(변동 가능)

2024년 3월, 금융위원회는 정부, 공적금융기관,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필요한 금융 수요는 약 1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증설에 약 188조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대출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DB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은 총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조성된 자금은 태양광 및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공적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생 에너지 분야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펀드는 초기 1.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출자가 논의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이 펀드의 20.0%를 출자하여 리스크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3년 10월 해당 펀드의 1단계 펀드가 출범하였고 KDB산업은행이 1단계 펀드인 20.0%(2,520억 원)를 출자하고 나머지 시중은행이 각각 16.0%(2,016억 원)을 부담한다. 이 펀드는 각 은행의 계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KDB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위해 조성될 금융 자원 중 계획이 확정된 금액을 제시했다. 다만, 기관별 목표 연도와 목표 금액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으며 각 기관이 미래에너지펀드와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 계획에 따른 추가 자금 투입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만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지역사회의 반발, 초기 단계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적은행과 민간은행이 효율적으로 금융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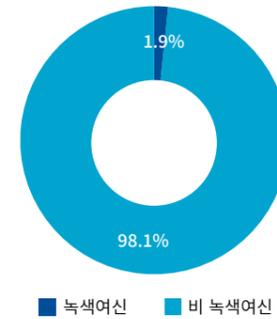
12. KDI경제정보센터: <https://ie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9226>

13. 1단계 총 자금 규모: 1조 2,600억 원

민간은행 녹색여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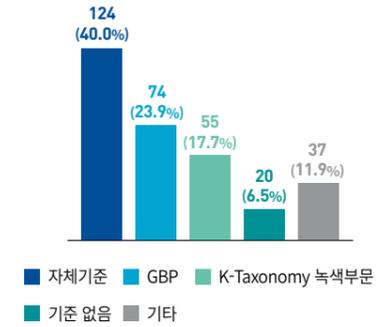
2023년 말 민간은행 녹색여신 잔액 31.7조, 총 대출자산의 1.9%에 그쳐

그래프 27 총 ESG대출 중 녹색여신



그래프 28 녹색여신에 적용된 분류체계

단위: 건(%)



2024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¹⁴ 일부 민간은행은 관리지침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녹색여신을 공급해왔다. 본 설문에서 응답한 국내 12개 민간은행의 2023년 말 녹색여신 잔액은 총 31.7조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22.9조 원 대비 38% 증가한 수치이나 해당 은행들의 총 대출자산 1,637조 원의 1.9%에 불과하다.

설문조사 결과, 녹색여신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녹색여신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12개 민간은행의 2023년 말 녹색여신 잔액 310건에 가장 많이 적용된 분류체계는 은행 자체기준¹⁵이 124건(40.0%)으로 나타났고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GBP) 74건(23.9%),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 55건(17.7%)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적용된 기준 없음'이 20건(6.5%)을 차지했으며 기타 기준¹⁶은 37건(11.9%)으로 나타났다.

녹색여신 적합성 심사 프로세스

그림 2 녹색여신 적합성 심사 프로세스



주: 파란색 요소로 구성된 도식도는 일반 기업여신 심사 프로세스이며, 녹색 요소는 녹색여신 적합성 심사 시 추가되는 항목

14. 본 설문의 녹색여신 조사는 2024년 9월~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데이터와 의견은 정부의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이전 기준임

15.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또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됨

16. 한국형 녹색채권가이드라인 13건(4.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2건(3.9%), 사회적채권원칙 6건(1.9%), 기후채권표준 5건(1.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1건(0.3%)

2023년부터 일부 민간은행은 자체적으로 녹색여신 적합성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하기 시작했다. 녹색여신 적합성 심사는 영업점에서 이루어지거나 영업점 검토 후 ESG 부서에서 최종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은행의 녹색여신 심사 절차는 일반 기업여신 심사와 유사하지만 심사평가 단계에서 자금 용도가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ESG 부서의 보고서가 추가된다. 또한 일부 은행은 녹색여신 공급 이후 채무자에게 자금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녹색여신 운영상 애로사항

민간은행이 녹색여신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심사평가 단계에서 녹색경제활동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다.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또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채무자의 녹색경제활동 적합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정기준과 배제기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은행 내부 인력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판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부 기관에서 제기되었다.

다음은 사후관리 단계에서 금융사 간 녹색여신 실적 비교의 어려움이다. 관리지침 제정 전에는 금융사들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녹색여신을 공급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녹색여신 심사기준이 느슨한 은행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녹색여신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간 녹색여신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녹색여신 관리지침,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나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자금 사용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대신 판단하도록 허용한다. 적합성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제 기준과 보호 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제출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독립된 외부 검토 기관의 활용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이 금융회사 내부의 적합성 판단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금융기관 내부 인력의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금융당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침에는 녹색여신 실적 측정 기준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녹색여신의 정의와 핵심 요소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금융사 간 실적 비교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공통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¹⁷ 향후 지침 개정안에 표준화된 녹색여신 측정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여건이 이제 막 조성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녹색부문에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7.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ESG투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52.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총 운용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 또한 56.7%에 이른다. 하지만 책임투자 원칙과 관여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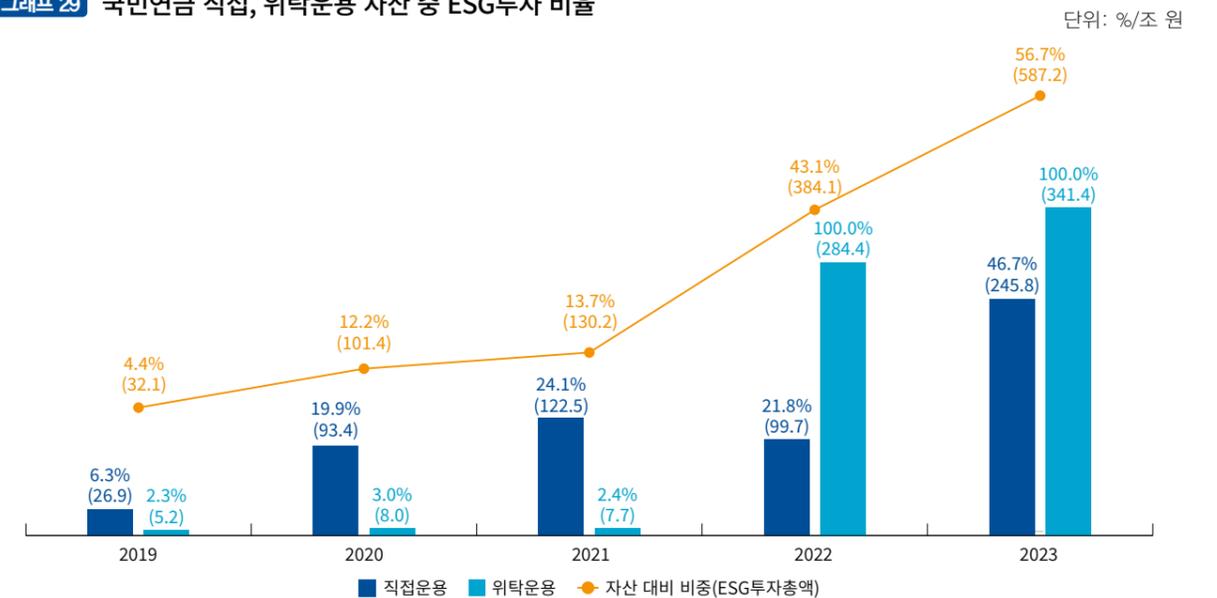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총 587.2조 원(직접운용 245.8조 원, 위탁운용 34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자산별로는 주식 468.1조 원(국내: 148.0조 원, 해외: 320.1조 원), 채권이 119.1조 원(국내: 83.0조 원, 해외: 36.1조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해외 주식 직접 투자 138.5조 원이 ESG투자로 추가 집계되면서 2023년 책임투자 규모 성장을 주도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에도 위탁운용 자산 전체를 책임투자자에 편입하면서 195%라는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고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책임투자 규모 확대는 2019년 국민연금이 의결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결과이다. 이 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ESG요소를 재무 분석 과정에 통합시키는 'ESG통합' 방식으로 ESG 적용 자산군을 2020년에는 국내 주식(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2021년 국내 채권(직접운용), 2022년 국내외 주식 및 채권(위탁운용), 그리고 2023년에는 해외 주식 및 채권(직접운용)으로 넓혀왔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ESG반영 자산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국민연금의 총 운용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은 2021년 13.7%, 2022년 43.1%, 2023년 56.7%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며 그 목표를 이룬 셈이다.

그래프 29 국민연금 직접, 위탁운용 자산 중 ESG투자 비율



18. 국민연금은 2021년까지는 국내 주식 위탁자산 중 책임투자형으로 분류된 자산만을 책임투자자로 집계했으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위탁운용자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에 따라 2022년부터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일부 반영한 뒤, 위탁운용사가 책임투자 및 스투어드십코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운용사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책임투자자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부록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ESG통합' 정책은 글로벌 책임투자 트렌드에 발맞춘 중요한 정책적 시도이다. 하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운용 자산의 경우 '기업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역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ESG 통합전략을 이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마련한 ESG통합을 위한 평가 체계는 아직 직접운용 국내주식 및 채권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고 ESG 평가모형 및 체계가 대략적인 개요 외에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위탁운용의 경우, 2022년부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 자산 전체를 책임투자로 집계한 것은 이전 기준과 비교해 자의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집계 방식은 위탁운용 자산에 ESG가 적용되는 방식과 고려 정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ESG 투자 규모를 과대 계상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 포럼이 발간한 '2022년 ESG 금융보고서'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2023년에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위탁운용자산 전액을 책임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점검 사항은 i) 위탁운용사로부터 책임투자보고서를 제출 받아 책임투자 관련 정책, 지침, 조직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ii) 책임투자 관련 정책 및 지침 유지 여부 확인 iii) 책임투자 관련 활동 지속 여부 확인 등 형식적인 점검에만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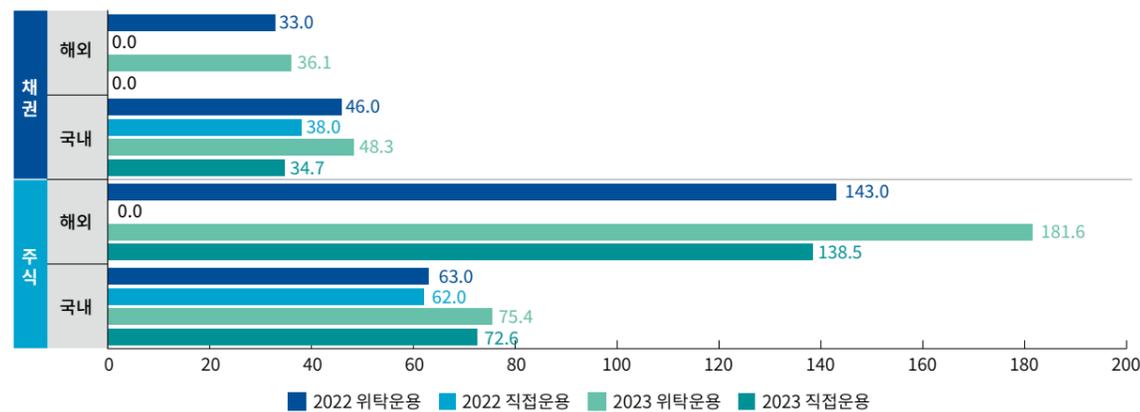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 국내 ESG규모의 32%를 차지하며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책임투자자와 관여활동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 ESG평가 체계 적용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ESG평가 모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평가 체계 개선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ii) 위탁운용사 및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강력한 관여활동 기준과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단순한 정책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책임투자 실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iii) 기업 공시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 기업에 글로벌 ESG공시체계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시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안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프 30 운용별 국민연금 ESG투자 분석(2023년말 잔액 기준)

단위: 조 원



섹터별 TOP 5 금융기관 46

2023 ESG금융 목표현황 47

부록

ESG금융 총액 기준 섹터별 TOP 5 금융기관

단위: 조 원

섹터	기관(기금) 명	2023년도 총자산	2023년도 ESG금융				ESG금융 총합
			ESG대출 총액	ESG투자 총액	ESG상품 총액	ESG채권 발행 총액	
은행	농협은행	397.0	38.1	13.7	28.8	3.6	84.2
	신한은행	469.7	57.3	8.5	0.7	5.6	72.2
	KB국민은행	512.4	15.5	17.4	10.0	8.3	51.2
	하나은행	84.3	19.4	16.7	0.8	2.4	39.3
	우리은행	436.7	19.3	12.4	0.2	3.6	35.5
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115.1	5.1	6.8	0.0	1.6	13.5
	삼성생명보험	279.5	2.1	7.5	0.0	0.0	9.6
	NH농협생명보험	53.3	0.9	5.3	0.0	0.0	6.2
	한화생명보험	114.8	0.4	2.8	1.6	0.9	5.8
	흥국생명보험	24.3	1.1	2.3	0.0	0.0	3.4
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83.6	2.3	4.1	3.7	0.0	10.2
	DB손해보험	44.9	0.0	2.1	7.3	0.0	9.4
	한화손해보험	18.0	1.1	3.1	0.6	0.0	4.8
	현대해상화재보험	43.8	0.0	1.2	2.9	0.0	4.2
	KB손해보험	37.7	0.6	1.7	0.4	0.3	3.0
자산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122.2	0.0	0.7	0.0	0.0	0.7
	NHAmundi자산운용	3.1	0.0	0.7	0.0	0.0	0.7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1.4	0.0	0.6	0.0	0.0	0.6
	신한자산운용	15.0	0.0	0.4	0.0	0.0	0.4
	우리자산운용	37.0	0.0	0.4	0.0	0.0	0.4
증권사	신한투자증권	50.1	0.1	1.2	1.3	0.0	2.6
	한국투자증권	75.7	0.3	1.4	0.5	0.2	2.4
	KB증권	56.0	0.4	0.9	0.5	0.1	2.0
	NH투자증권	56.7	0.8	0.9	0.1	0.1	1.8
	하나증권	46.0	0.1	0.8	0.0	0.2	1.2
공적금융	국민연금기금	1035.4	0.0	587.2	0.0	0.0	587.2
	한국주택금융공사	589.7	434.0	1.1	0.0	146.1	581.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43.6	24.5	0.0	0.0	19.0	43.6
	신용보증기금	121.8	10.8	0.5	0.0	14.4	25.7
	우정사업본부	151.0	0.0	16.7	5.4	0.0	22.1
	예금보험공사_예보기금	19.2	0.0	2.7	0.0	0.2	2.9
	공무원연금기금	7.8	0.0	1.7	0.0	0.0	1.7
	한국고직원공제회	64.2	0.0	1.3	0.0	0.0	1.3
	군인공제회	17.6	0.1	1.0	0.0	0.0	1.1
	기술보증기금	3.8	0.0	0.3	0.0	0.3	0.6

2023 ESG금융 목표현황

단위: 조 원

금융기관명	주무부처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적용/계획 여부	적용 항목	적용/계획 여부	적용/계획 여부
공적금융기관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X	-	-	-	X	-	X	X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O	2023	잔액기준	1.4	X	-	X	X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	X	-	X	X
국가유산보호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X	-	-	-	X	-	X	X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X	-	-	-	X	-	X	X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군인공제회	국방부	O	2024	잔액기준	1.0	O	투자	O	X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X	-	-	-	X	-	X	X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O	2023	투입금액	0.0	X	-	X	X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X	-	-	-	X	-	X	X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X	-	-	-	O	채권 발행	O	O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X	-	-	-	X	-	X	X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X	-	-	-	X	-	X	X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X	-	-	-	X	-	X	X
법무부-교정공제회	법무부	X	-	-	-	X	-	X	X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복권위원회사무처(복권기금)	기획재정부	X	-	-	-	O	투자	X	X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	X	-	X	미응답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산재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	X	-	X	X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X	-	-	-	X	-	X	X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X	-	-	-	X	-	X	X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O	2024	기타	13.8	O	채권 발행	O	O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X	-	-	-	O	상품	X	X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	X	-	X	X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X	-	-	-	X	-	X	X
예금보험공사_상환기금	금융위원회	X	-	-	-	X	-	X	X
예금보험공사_예보기금	금융위원회	X	-	-	-	X	-	X	X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2024	잔액기준	16.3	O	투자	O	X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	O	대출, 채권 발행	O	O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	O	-	O	O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	X	-	X	X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	X	-	X	X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X	-	-	-	X	-	X	X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부	X	-	-	-	X	-	X	X

금융 기관명	주무부처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적용/계획 여부	적용 항목	적용/계획 여부	적용/계획 여부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O	2030	투입금액	38.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X	-	-	-	O	채권 발행	O	미응답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한국관광해당공단	산업통상자원부	X	-	-	-	X	-	X	X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부	X	-	-	-	O	투자	O	X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O	2024	잔액기준	운용평잔의 5% 내외	X	투자	X	X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X	-	-	-	X	-	X	X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	O	투자	O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	X	-	X	X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O	2030	투입자금 누적금액	154.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X	-	-	-	X	-	X	X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O	2030	기타	205.8	X	-	X	X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부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	X	-	X	X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	X	-	X	X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O	2029	투입금액	162.6	X	-	O	X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부	X	-	-	-	X	-	X	X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X	-	-	-	X	-	X	X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X	-	-	-	X	-	X	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X	-	-	-	X	-	X	X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X	-	-	-	O	상품	X	X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	X	-	-	-	O	대출, 투자, 채권 발행	O	O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X	-	-	-	X	-	X	X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X	-	-	-	X	-	X	X
민간금융기관									
은행									
경남은행	BNK금융그룹	X	-	-	-	O	대출, 상품, 채권 발행	O	O
광주은행	JB금융그룹	X	-	-	-	O	-	O	O
농협은행	NH농협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12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그룹	X	-	-	-	X	-	O	X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X	-	-	-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O	2030	투입자금 누적금액	3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O	2030	투입금액	10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금융 기관명	주무부처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적용/계획 여부	적용 항목	적용/계획 여부	적용/계획 여부
전북은행	JB금융그룹	X	-	-	-	O	-	O	O
제주은행	신한금융그룹	O	2025(중기) 2030(장기)	투입자금 누적금액	18(중기) 30(장기)	O	-	O	O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O	2030	투입자금 누적금액	60	O	대출, 상품, 채권 발행	O	O
iM뱅크	DBG금융그룹	O	2024	입자금 누적금액	6.4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50	O	대출, 채권 발행	O	O
생명보험사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그룹	X	-	-	-	O	대출, 투자, 채권 발행	O	O
동양생명보험	종국다자보험그룹	X	-	-	-	O	대출, 투자	O	O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국메트라이프	O	2030	투입금액	7.7	X	-	X	X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그룹	X	-	-	-	X	-	O	O
삼성생명보험	삼성그룹	X	-	-	-	O	대출, 투자, 상품	O	O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금융그룹	O	2030	기타	30	O	대출, 투자	O	X
한화생명보험	한화그룹	미응답	-	-	-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흥국생명보험	태광그룹	X	-	-	-	O	대출, 투자	O	O
ABL생명보험	종국다자보험그룹	X	-	-	-	O	대출, 투자	O	O
AIA생명보험	AIA그룹	X	-	-	-	X	-	X	X
DB생명보험	DB그룹	X	-	-	-	O	-	O	X
IBK연금보험	IBK기업은행	X	-	-	-	X	-	X	X
iM라이프생명보험	DGB금융그룹	미응답	-	-	-	X	-	X	X
KB라이프생명	KB금융그룹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KDB생명보험	KDB산업은행	X	-	-	-	O	투자	O	O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12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손해보험사									
롯데손해보험	롯데그룹	미응답	-	-	-	미응답	-	미응답	미응답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그룹	X	-	-	-	O	대출, 투자, 상품	O	O
코리안리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X	-	-	-	O	대출, 투자, 채권 발행	O	미응답
한화손해보험	한화그룹	X	-	-	-	X	-	O	O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X	-	-	-	O	대출, 투자, 상품	O	O
흥국화재해상보험	태광그룹	X	-	-	-	X	-	X	X
DB손해보험	DB그룹	X	-	-	-	X	-	X	X
KB손해보험	KB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50	O	대출, 투자, 채권 발행	O	O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120	O	대출, 투자, 상품	O	O
SGI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X	-	-	-	O	투자, 상품	O	X

금융 기관명	주무부처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적용/계획 여부	적용 항목	적용/계획 여부	적용/계획 여부
증권사									
교보증권	교보생명그룹	X	-		-	O	투자, 상품, 채권 발행	X	X
다음투자증권	다음금융그룹	X	-		-	O	투자	O	O
대신증권	대신금융그룹	X	-		-	X	-	X	O
리딩투자증권		X	-		-	X	-	X	X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그룹	X	-		-	O	-	O	X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그룹	X	-		-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부국증권	한일그룹	X	-		-	O	대출, 투자, 상품	O	O
삼성증권	삼성그룹	X	-		-	O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상상인증권	상상인금융그룹	X	-		-	X	-	X	미응답
신영증권		X	-		-	O	투자	O	O
신한투자증권	신한금융그룹	O	2030	투입자금 누적금액	3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아이엠증권	DGB금융그룹	X	-		-	O	-	X	O
유안타증권	유안타금융그룹	X	-		-	X	-	X	X
유진투자증권	유진그룹	X	-		-	O	투자, 상품	O	O
유화증권		X	-		-	X	-	X	X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	X	-		-	O	대출	O	O
케이프투자증권	케이프	X	-		-	X	-	X	X
코리아에셋투자증권		X	-		-	O	투자	X	X
키움증권	다우기술	X	-		-	X	-	X	X
하나증권	하나금융그룹	O	2030	투입자금 누적금액	6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X	-		-	X	-	O	X
한화투자증권	한화그룹	X	-		-	X	-	X	X
현대차증권	현대자동차그룹	X	-		-	O	투자	O	O
흥국증권	태광그룹	X	-		-	X	-	X	X
BNK투자증권	BNK금융그룹	X	-		-	O	-	O	O
DB금융투자	DB그룹	X	-		-	X	-	X	X
DS투자증권		X	-		-	O	-	O	O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X	-		-	X	-	X	X
KB증권	KB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5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LS증권	LS그룹	X	-		-	O	투자	O	O
NH투자증권	NH농협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120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SK증권	SK그룹	X	-		-	O	대출,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O

금융 기관명	주무부처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적용/계획 여부	적용 항목	적용/계획 여부	적용/계획 여부
자산운용사									
교보약사자산운용	교보생명그룹	X	-		-	O	상품	O	X
다음자산운용	다음금융그룹	X	-		-	X	-	X	X
대신자산운용	대신금융그룹	X	-		-	O	투자, 상품	O	O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X	-		-	O	투자	O	O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그룹	X	-		-	O	투자	X	X
베어링자산운용	매스뮤추얼	X	-		-	X	-	X	X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그룹	X	-		-	O	투자	X	X
신영자산운용		X	-		-	X	-	X	X
신한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	O	2030	기타	30	O	상품	O	X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	O	2030	투입금액	100	O	상품	O	O
트러스트자산운용	BNK금융그룹	X	-		-	O	투자, 상품	O	O
한화자산운용	한화그룹	X	-		-	O	투자, 상품, 채권 발행	O	미응답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해상화재보험	X	-		-	X	-	X	X
흥국자산운용	태광그룹	X	-		-	X	-	X	X
BNK자산운용	BNK금융그룹	X	-		-	O	상품	O	O
DWS자산운용	도이치뱅크그룹	O	-		-	O	투자	O	O
IBK자산운용	IBK기업은행	X	-		-	X	-	O	O
IM에셋자산운용	DGB금융그룹	X	-		-	X	-	X	X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산업은행	X	-		-	O	-	O	X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금융그룹	O	2030	잔액기준	120	O	상품	O	O

※ 공적의 경우 자사 ESG금융목표 기준으로 작성

※ 민간의 경우 금융그룹 ESG금융목표 기준으로 작성

KOREA ESG FINANCE WHITE PAPER 2023